

한인뉴스

9

2011 VOL.183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The Pride of Korea!
The Pride of

Unicorn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유니콘

Made in Korea의 자부심을

세계에 펼쳐 보이겠습니다

Best Quality . Best Price . Best Service

Unicorn

유니콘미싱공업(주)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계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항공, 대한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에어, 로얄타이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항공, KLM 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아

"가루다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Garuda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Resort	Room Type	2인 1실			1인 1실		
		항공 + 2박		1박 추가	항공 + 2박		1박 추가
		2/5~2/28	12/25~2/4		2/5~2/28	12/25~2/4	
IBIS Kemayoran ★★★	Standard	759,000	789,000	34,000	829,000	859,000	68,000
IBIS Arcadia ★★★	Standard	769,000	799,000	38,000	839,000	869,000	76,000
IBIS Slipi ★★★	Standard	769,000	799,000	41,000	849,000	879,000	81,000
Kartika Chandra ★★★	Standard	769,000	799,000	42,000	859,000	889,000	83,000
IBIS Mangga Dua ★★★★★	Superior	779,000	809,000	43,000	859,000	889,000	85,000
Mercure Rekso ★★★★★	Superior	799,000	829,000	43,000	879,000	919,000	85,000
IBIS Tamarin ★★★	Standard	799,000	829,000	45,000	889,000	919,000	90,000
Aston Marina ★★★★★	1 Bedroom	799,000	829,000	47,000	899,000	929,000	93,000
Le Meridien ★★★★★	Superior	829,000	859,000	58,000	949,000	979,000	115,000
Crowne Plaza ★★★★★	Deluxe	839,000	869,000	63,000	969,000	999,000	125,000
Gran Melia ★★★★★	Deluxe	879,000	919,000	85,000	1,059,000		170,000
Mulia Senayan ★★★★★	Splendor	959,000	989,000	122,000	1,219,000		244,000
Four Seasons ★★★★★	Superior	969,000	999,000	124,000	1,219,000		248,000
Ritz Carlton ★★★★★	Grand Room	999,000		140,000	1,289,000		279,000
Mandarin Oriental ★★★★★	Superior	999,000		142,000	1,299,000		284,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비자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지 호텔"

	호텔*리조트	풀빌라*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Nikko Bali, Melia Holiday Inn, Sanur Beach,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룸복	★★★★★ ★★★	Sheraton Senggigi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et
		Kamuela Vilas Sminyak The Ahimsa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s & Spa Qunci Villas Java Banana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사무실 이전 안내

Api

Do it Now!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in association with

MKU

LEAP 21

PT. MULTI KONSTRUKSI UTAMA

(Engineers & General Contractor)



교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속에 성장한 **Pt. API** 와 **Pt. MKU**의 임, 직원은 더욱 더 교민 여러분들께 다가서 고자 2011년 8월 1일자로 본사를 아래의 **Wisma Korindo Building**으로 옮겼음을 알려드립니다.

취급 업종

1. 각종 공장 건설의 설계 및 시공
2. 샌드위치(E.P.S)판넬 및 PE(폴리에틸렌)판넬의 생산 및 시공
3. 고강도 CNP의 생산
4. Aluminum 창호의 제작 및 설치
5. 각종 가설 건물의 설계 및 시공

신규 주소

본사 : Wisma Korindo 7th. Floor

Jl. Haryono Kav.62. Jakarta 12780, Indonesia

공장 : Jalan. Anggadita Kec. Klari, Kav. Karawang Barat

전화 : API : 021-797-8989 / MKU : 021-797-8949

팩스 : API : 021-797-8990 / MKU : 021-797-8951

메일 : cbwapi@gmail.com / api15@anekapanel.co.id
mku15@multikonu.co.id

Contact : Choe, Byoung Woo (62-0811-956-227 : President Director)

Choi, Young Hee (62-811-924-790 : Factory Manager)

Ibu Veronika (62-817-883-251 : API Manager)

Suyamto (62-821-2360-6236 : Electrical Engineer)

대한민국,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에 지금 바로 투표합시다!

제주도가 The New7wonders에서 진행 중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28개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 투표기간 : 현재 ~ 2011. 11. 11 (발표일)
- 투표방법 : 인터넷 및 전화 투표

<인터넷 투표> : www.new7wonders.com

- 회원가입 필요
- 28개 후보지 중 7곳을 선택 / 소요시간 5분
- * 마지막 단계에서 간단한 신상명세 입력 후,
투표시 입력했던 개인 이메일로 보내오는 투표확인
메일에 재접속하면 투표 완료.
(재접속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 세계 440여 곳을 후보지로 전 세계 1억 명의 네티즌이 투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세계 28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되기 위한 최종 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 투표>

- 전화걸기 :

001-44-75-890-012-90(세계 공통)

- 사무국 직원의 안내멘트(영어) 후

“뵙~~~” 음이 나오면

제주도 코드(7715) 입력 후

thank you 멘트가 나온 후 끊어야 함

* thank you 전에 통화종료 시 무효

www.jejun7w.com

2012년 4월 11일,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권

문) 재외국민도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예 : '국외 일시체류자')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가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이라도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도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입니다.

재 외 국 민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신고를 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역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012년 재외선거 일정표

사무일정	실시사항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1. 10. 14.~'12. 5. 11.	'12. 6. 22.~'13. 1. 18.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공관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11. 11. 13.~'12. 2. 11.	'12. 7. 22.~'12. 10. 20.
	국외부재자신고(공관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12. 2. 22.~'12. 3. 2.	'12. 10. 31.~'12. 11. 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39일부터 선거일 전 3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2. 3. 3.~'12. 3. 7.	'12. 11. 10.~'12. 11. 14.
선거일 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12. 3. 12.	'12. 11. 1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등 송부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12. 3. 17.~	'12. 11. 24.~
선거일 전 24일부터 선거일 전 23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	'12. 11. 25.~'12. 11. 26.
선거일 전 15일부터 선거일 전 14일까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12. 3. 27.~'12. 3. 28.	-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재외투표 (6일 중 정하는 기간)	'12. 3. 28.~'12. 4. 2.	'12. 12. 5.~'12. 12. 10.
선거일	개 표	'12. 4. 11.	'12.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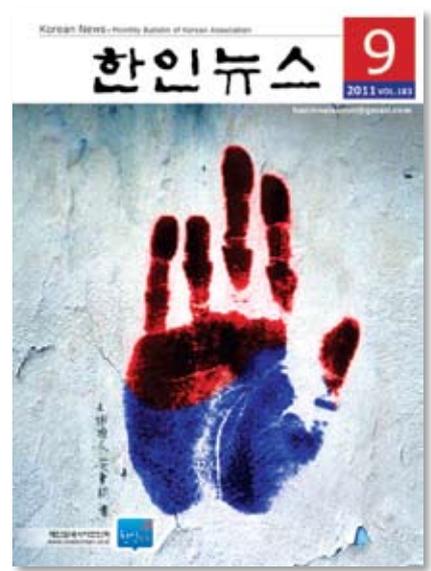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표지설명 ▶▶▶
나는 천국에 가셔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을
것ियो. 대한독립의 함성이 천국까지 들려오면 나는
기꺼이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오.
- 안중근 -

표지디자인 : Diki Satria Nugraha

제주에 투표합시다 6

2012재외선거안내 7

2011 한국문화주간 행사안내 10

산과 들에 피는 꽃 / 한국의 야생화 15

차 한 잔 마시며 <김문환> / 아바이마을 16

인터뷰 / 이정화 중소기업청 과장 18

자카르타스케치 <엄종한> / 소망 21

제6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22

제66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 독립의 의미 <Yuni Sugandini> 28

연재기고 <신성철>
/ '브로모', 모래의 바다에서 별의 바다를 보다 30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한인회가 한국의 의사, 약사회와 의료봉사를 펼치며 시작된 8월은 고 장주익 씨의 죽음으로 이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건강한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코이카인도네시아와 굿네이버스인도네시아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하는 희망을 담아보았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사철이 없는 곳에 살면서도 몸은 어느새 가을을 느낍니다. 이제 곧 한국문화주간이 시작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한 문화를 전파하고 향유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드십시오.

haninnewsinni@gmail.com
0815.1070.3065 박정자

이모저모, 한인사회32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CEO 역량강화 연수
- 한-인니 교육외교 본격 가동, MOU 체결
- 한국경찰청과 한인회, 인니경찰청에 감사의 뜻 전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대회
- 반딧 세관, 한인업체와 간담회
- 사랑의 의료봉사, 한인회-의사회-약사회
-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개원
- 코린도장학재단 인니대학교에 장학금 지원
-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사무실 현판식
- 한국부인회, 다문화결혼가정돕기 자선콘서트
- 우리은행, 15년 연속 인도네시아 최우수은행 선정
- K-TV, 인도비전과 채널공급계약 체결
- 코이카, 인니 수도권 물부족 해소한다
- 바람소주, 네슬레의 고습생수 사용계약
- 인치혁 개인전
- 한국문화원의 문화산책

/ 재미있는 동양화 읽기<손인식>

- 고 장주익씨의 명복을 빌며
- 문화회관 이용안내 및 무료법률상담 안내
-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코이카 인도네시아
-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 직스 소식
- 지스 소식 <취재 : 길나연 한인뉴스학생기자>
- 건강검진 어떻게 받아야 할까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김성월>
/ 깔리만탄섬 다악족(가일) 3 56

길 위에서 <박관구>
/ 장하(長夏)58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이승민>
/ 신 출입국관리법 3 60

이병수와 함께 하는 보험교실 <이병수>
/ 자동차보험 64

귀국이사물품통관안내/대사관.....67

드라마에서 퍼 올린 바하사 <허영순>
/ 우리집 여자들 68

와칭! 코리아
/ 8.15 제66주년 광복절과 제63주년 건국절 ... 70

함께해요 71

생활정보 72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공지 77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엄종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1. 한. 국. 문. 화. 주. 간

2011 Korean Cultural Week



일시 : 9.28(수) ~ 10.4(화)

장소 : 간다리아몰, 스나얀테니스장, 문화원

주최 : 한국대사관

협조 : 한인회, 한인문예총, 한인기업 등

한-인니 문화교류를 통한 양국간 우호 관계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공연예술작품을 통해 국가 간의 문화교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행사 : 태권도대회 및 시범단 공연 / 문인화 26인 초대전 / 한국영화제 / 한식경연대회
k-pop 경연대회 / 한류가수공연 / 드럼킥공연 / 동포 참여 행사 등

참여단체 : 한인니문화연구원, 한바패,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 따나메라합창단, 월화차문화원
색소폰동호회, 웨슬리중창단 등

행사별 계획

태권도대회

Junior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
- Korean Ambassador cup -

- 태권도 관심 제고/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
- 국기인 태권도 보급 확산
- 인니 태권도협회와 공동 주최
- 주니어 전국대회 개최(33개주 참여)

일시 및 장소 : 9.27(화)~29(목), 스나얀
실내테니스 경기장

경기종목 * 남,여개인/남자팀/여자팀/커플
- 개인 겨루기(600명)
- 품새 (130명) 등 900여 명 참가

태권도시범단 공연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 국기원과 더불어 최고의 시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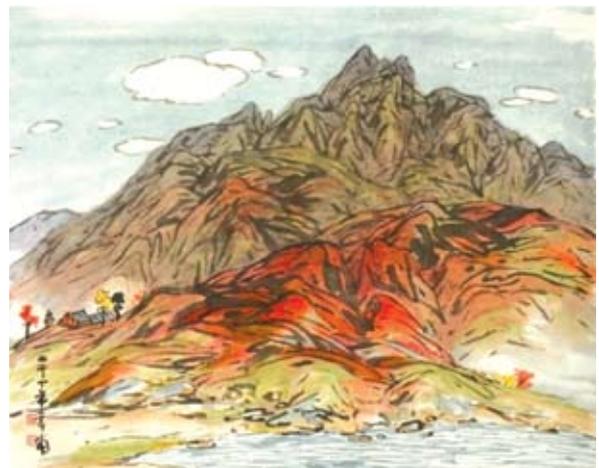
시범공연 일자 * 총 4~5회 공연
- 9.29(목) : 태권도 대회시
- 9.30(금) -10.1(토) : 간다리아몰
- 10.2(일) : 수라바야(예정)

문인화 26인 초대전

- 전통 문인화 소개, 한국회화의 아름다움 확산
- 한국회화의 간결성과 아름다움 홍보

일시 및 장소 : 9.29(목) ~ 10.13(수), 문화원

참여작가
금봉 박행보, 아천 김영철, 주봉 공영석 등
현대 한국 문인화단을 이끄는 핵심 작가들





드럼셋 공연

- 한국 현대 무연극 중 유럽 등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여성드럼공연팀 초청
- 현대 대중예술 소개를 통해 상업적 진출 가능성 모색

일시 및 장소 :
10.1 ~ 2(하루 2회)/ 간다리아울

- k-pop, 한식경연대회, 동포행사 등과 연계 추진

한류가수 공연

- 한류 붐 조성 및
- 한국에 대한 관심 촉발 계기 마련

일시 및 장소 : 10.2 ~ 10.3/ 간다리아울
연예인 : 이준기, 박효신 등 10명(백댄서 3-4명 포함)

- 10.2(일) : K-pop 결승전과 연계 공연
- 10.3(월) : 인니 군연예인단과 합동 공연 실시



K-POP 경연대회

- K-POP 및 한류 붐 조성을 통해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

일시 및 장소 : 9.28-29(예선전), 10.2(결승전), 물

- 출전팀, 인터넷 접수(60팀 선정)
- 이틀간의 예선전 통해 결승전 출전팀 10팀 선정
- 결승전시 한류가수와 합동공연, 홍보효과 증대
- * 우승팀은 11월 한국행사시 초청 예정

동포 참여 행사

- 양국간 문화교류 촉진 계기로 활용
- 교민 화합, 참여의식 증대 등으로 자부심 고취

일시 및 장소 : 기간 중 수시, 간다리아울

참여행사

한바패 사물놀이/ 어린이합창단/ 현지어린이합창단/
월화차문화원/ 색소폰 동호회/ 음악협회/
가야금, 거문고/ 신학대학 중창단/ 등
* (미정)반동한사모, UI 한국어과 학생들과의 합동공연

한국우수영화제

- 영화를 통한 한류 재점화 기회 마련
- 한국영화산업 진출의 발판 마련
올해도 한국영화가 인도네시아시장에 진출
(무명검, 구르을 버서난 달처럼 등)

일시 및 장소
9. 28(수) ~ 10. 4(화), 간다리아울 시네 21

상영 : 김종욱 찾기, 하모니, 포화속으로,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맨발의 꿈, 불꽃처럼 나비처럼,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 놈 등
(현지인들 시청 후 반응 좋은 영화위주 선정)

티켓(무료) : 사전 30% 배포, 현장 70% 배포
- 사전 배포자 불참 때 현장 대기자에게 배포
* 1일 3~4회 상영, 관객들에게 선택의 기회 확대

한식페스티벌

Discover Korea's Delicious Secret in Indonesia

- 농식품 수출과 한식 세계화의 동남아 거점 확보
- 한국 농식품을 한식문화와 연계하여 종합 마케팅

일시 및 장소 : 10.1(토)~10.2(일)

- 간다리아몰 지하 1층, 1층 main atrium

주요행사

- 현지인 요리경연 및 체험/한식페스티벌 개막식
- 한식 특강 및 시연/ 농식품 판촉전

현지인 요리경연 및 체험

시간 : 2011. 10. 1(토) 13:00-15:00

장소 : 지하 1층 롯데마트 앞

접수 : 3인 1조, 10팀(한식 story telling)
온라인 접수 (9.12-17)

메뉴 : 인니인이 좋아하는 한식

심사 : W. Wongso, 한복진, 차경희 교수 등

시상 : 참가자 1/2 정도(*부상은 농식품 등, 미정)

한식페스티벌 개막식

시간 : 2011. 10.1.(토) 16:00-18:00

초청대상 : 언론인, 정부관계 인사 등 (200여명)
* 경북 성주군수 참석(참외판촉계기)

장소 : 1층 main 공연장 (main atrium)

진행순서

- 드럼셋 공연(16:00-16:30)
- 축사 (대사, 인니측 왕소 등)
- 특강 (10분 이내) : 한복진 교수
- 화합 퍼포먼스 : 200명분 비빔밥 (photo session)
- VIP 판촉전 둘러보기
- * 행사장 전시(안) : 궁중음식 전시 + 시식

한식 특강 및 시연

강사 : 전주대 한복진 교수팀, 운영요원

일시 : 10. 2.(일) 13:00-16:00

장소 : 지하 1층 롯데마트 앞

대상 : 일반인

메뉴 : 시연, 전시, 시식용(메뉴별 300인분)
* open space 스크린 중계

협조 : 간다리아몰 내 한식당
(압구정, Korean 덮밥, 분식점)



농식품판촉전

일시 : 10.1(토)~2(일) 10:00-20:00

장소 : 1층 식당가(main street)

자수전시회

- 한국자수의 아름다움 홍보
- 자수 시연 등을 통해 현지인들과의 교감 증대
- 양국간 문화교류 촉진 계기로 활용

일시 및 장소 :

9.22(목) ~ 25(일), 국립박물관 1층 전시실

* 개막식 : 9.22(목) 16:00

- 자수전시회 및 시연을 통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 인근 학교 학생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
- * 윤해중 전 대사, 작가들 다수 참석 예정

주관 : 한-인 친선협회(한국자수협회)



10월 문화주간 행사 계획(안) 일자별							
행 사	9/28(수)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10/4(화)
영화제							
전시회			개막식				
태권도대회		본대회					
태권도 시범		스나얀	간다리아울 (11:00/15:00)	간다리아울	수라바야		
k-pop	예선전 (15:00)	예선전 (15:00)			결승전 (16:00)		
한류가수공연						양국합동공연 (15:00)	
한식경연				(13-15/16-18)	(13:00-16:00)		
드럼캣				(11:00/16:00)	(11:00/16:00)		
어린이합창단	(15:00)			(11:00)		(15:00)	
tana mehra	(15:00)	(11:00)		(11:00)		(15:00)	
한바패		(15:00)	(15:00)				
월화차문화원			(11:00)		(11:00)		
색소폰동호회		(11:00)	(11:00)		(11:00)		
음협		(11:00)				(11:00)	
웨슬리중창단			(11:00)		(11:00)	(11:00)	
한사모/니	(15:00)			(11:00)			
가야금, 거문고	(15:00)		(15:00)			(11:00)	



10월 문화주간 행사 상세 계획							<간다리아몰>
일자	9.28(수)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시간				10:00-20:00	10:00-20:00		
행사				농식품 판촉전	농식품 판촉전		
				한바패	한바패		
		11:00	11:00	11:00	11:00	11:00	
		①따나메라합창단	①색소폰동호회	①어린이합창단	①색소폰동호회	①음악협회	
		②색소폰동호회	②웨슬리중창단	②따나메라합창단	②월화차문화원	②웨슬리중창단	
		③음협	③월화차문화원	③한사모/UI 공연	③웨슬리중창단	③가야금, 거문고	
			④태권도시범공연	④드럼캣	④드럼캣		
				13:00-15:00	13:00-16:00		
				현지인요리경험, 체험	한식특강, 시연 등		
	15:00	15:00	15:00			15:00	
	①어린이 합창단	①한바패	①태권도시범공연	16:00-18:00	16:00	①인니 군악대공연	
	②따나메라 합창단	②K-pop 경연(예선2)	②어린이 태권도 지도	한식 개막식	①인니 군악대공연	②어린이합창단	
	③한사모/ UI 공연		③한바패	①드럼캣	②드럼캣	③따나메라합창단	
	④가야금, 거문고		④가야금, 거문고	②축사, 특강	③K-pop 경연(결승)	④한류가수합동공연	
	⑤K-pop 경연(예선1)			③비빔밥 퍼포먼스	④한류가수 공연		
<실내테니스경기장> 태권도대회(9.27~29)		09:00-18:00					
		①인니 군악대공연					
		②태권도시범단 공연					
<문화원> 문인화초대전 (9.29~10.13)		10:00~	17:00				
		문인화초대전 개막	①문인화 개막식				

별보다 예쁜 도라지꽃 (초롱꽃과)

학명 : *Platycodon grandiflorus*

꽃말 : 영원한 사랑



종이를 접어 만든 듯 단아하고 여린 자태로 사랑받는 도라지꽃. 붕오리가 종이풍선 같아서 발룬 플라워(Balloon flower)라고도 한다. 7-8월의 산과 들에 위를 향한 종모양의 꽃이 흰색과 보라색으로 핀다. 한국·일본·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도라지꽃 박화목 작사 / 윤용하 작곡

도라지꽃 풀초롱꽃 홀로 피었네
솔바람이 잠자는 곳 산골짜기
옛부터 줄줄 흘러온 흰 물줄기
한밤중엔 초록불내며 몸 씻는 소리



아바이 마을

김 문 환/논설위원

동해안 북단에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 등이 모두 갖춰져 있고,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태백산맥의 여기저기를 터널로 뚫어 지금은 서울에서 당일 중으로도 다녀올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을 단풍철이면 매년 어김없이 찾게 되면서 알프스 풍의 관광촌으로 개발되기 이전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소형 어선들이 칠따라 명태, 오징어, 콩치 등을 갑판까지 가득 채운 채 만선의 깃발을 펴리며 귀항하는 풍족스러움이 넘쳐나는 어촌에 불과했으며, 간첩선을 추격하는 군함의 함포소리에 새벽잠이 깨기도 하고, 시내 한 복판인 청초호 쪽에 자리잡고 있는 북과공작부대(HID)의 공포스러움이 주민들을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예사롭지 않은 도시였다. 산행길을 잘못 들었다가는 위장한 채 훈련 중인 북과공작원들과 조우하여 어깨에 메고 있는 첩뿌리들을 다 내 동태이치고 줄행랑을 치기도 하고, 학교길 초등학생들이 뒷산 미군 통신부대(지금의 한화콘도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미군트럭의 콩무니를 쫓으며 ‘초코렛’을 외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남북 냉전시대를 상징하는 접점지역인 이곳에 향수와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는 집단체가 있으니, 소위 함경도 실향민들의 삶터인 ‘아바이 마을’이다.

1.4 후퇴 당시 주로 함경남도 지역에서 월남한 이들이 원산, 함흥, 흥남, 북청 등 그들의 고향과 가장 가까운 남녘에 임시거주처를 잡아 곧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하며 집단 부락을 만든 곳이 바로 속초시 중앙동 부둣가에서 50미터 폭도 안 되는 수로를 갯배를 타고 건너는 청호동이라는 지역이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거친 해풍을 막아주는 해변을 따라 길게 늘어져 형성되어 있는 이 동네에 들어서면 길 옆 철조망에 넘어 건조시키는 오징어 냄새가 우선 코를 찌르며 ‘하이 Noon(High Noon)’이라는 영화에서나 느낄만한 적막감에 주눅이 들며 웅기종기 모여 앉은 길가의 아낙네들이 뱉어내는 함경도 사투리는 외지사람들을 확실하게 이방인으로 만들고 만다. 매달 치르는 선주와의 결산일만 되면 평양출신의 여장부가 운영하는 ‘평양면옥’에서 주사를 부리다 ‘평안도 박치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들의 주사 뒤엔 항상 고향타령이 빠지지 않으며 결국 북녘하늘을 향한 울부짖음은 포효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는 어업 종사자들은 수구지심(首丘之心)의 본능에 의해 겨울 명태철만 되면 손바닥만 한 군용 나침반에 의존하여 명태 주어장인 신포항 방향으로 키를 잡다 동이 트면서 갑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금강산의 위용을 보고서야 엔진이 시뻘겋게 과열되고 연통이 휘어질 정도로 전 속력으로 탈출하여 보지만 결국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어 ‘납북어선’ 신세가 되어 일간지의 뉴스거리가 됨은 물론 정부 당국자에게는 골치 아픈 일거리를 선사하고야 만다.



지난 8월 22일 서남아 지역 10개국 자문위원들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한인회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 출범회의가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이 기구가 헌법조문에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이 그 의장임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고, 고급호텔을 빌려 외관상 품격 있는 행사를 치르는 일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파티가 끝난 지금 시각부터는 자문위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평화통일의 선봉대로서 팔을 걷어 부치고 국민들의 통일외지를 어떻게 결집시키느냐 하는 실천방안에 대해 더 고심하고 머리를 짜야 할 것이며, 민주적인 평화통일의 조기달성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봉사정신과 진정성은 기본덕목일 것이다. 아울러 ‘아바이 마을’ 제1세대의 육신은 이제 거의 쇠퇴하였지만, 살아생전 수없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그들의 노래는 아직도 우리 후세대의 귓전에 맴돌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통일마당의 제2, 3세대인 우리 자신들은 철책선에서 복무하는 내 자식들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며, 언제 시간이라고 난다면 아이들 손을 잡고 휴전선 몇 곳에 설치되어 있는 통일전망대라도 한번 둘러 분단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통일문제에 대해 되새겨 보는 통 큰 행보를 감행해도 좋을 듯 하다.



GBC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정부차원의 지원이므로 동남아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허브기관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포럼, 세미나, 연구개발활동 등을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한다면 국제산하협력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우려합니다.

열심이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남자,



인도네시아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화 과장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건물 안에 있다. 작은 사무실에 책과 메모지가 그득하게 쌓여 있다. 그를 만나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사업얘기가 터져 나온다. 그런 열정이 있기에 오늘의 결실을 얻었으리라는 믿음이 갔다.

이 과장의 계획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원대한 청사진이 이미 그려져 있다. 해마다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3천 명 정도의 인니 인력을 위하여 중소기업근로자훈련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 뽕짝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곳이 완공되면 기술력향상을 위한 집중훈련을 통해 전문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까지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한다.

그 일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근무연한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연장근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도네시아 생활에서 느낀 점을 덧붙여 문자, 정상적이고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시스템 전반이 투명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식의 개혁을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그린비즈니스센터(Green Business Center)가 설립되어 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린비즈니스센터는 한국(중소기업청)과 인도네시아(중소기업부)가 양국의 녹색산업 진흥과 녹색정보 교류를 위해 공동으로 설립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센터로써 그 한가운데 중소기업청의 이정화 주재관이 있다. 이정화 과장은 센터를 기획하고 설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 인도네시아에 오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이곳에서 얼마나 사셨는지요.

지금부터 약 13년전인 1998년도부터 중소기업청은 주재관을 인니 중소기업부에 파견하여 왔습니다. 당초 한국의 중소기업청과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가 양국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공유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교류하자는데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계자를 상호 파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식으로 첫번째 공동 MOU를 체결하면서 저는 5번째 주재관으로 오게 되었고 금년 9월 현재 1년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 지난달에 문을 연 GBC(그린비즈니스센터)를 과장님께서 기획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구상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작년 5월에 한국에서 ASEM 회원국가들이 모여 “2010 아셈 녹색성장과 중소기업”이란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인니 중소기업부 간부들과 같이 가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녹색산업의 동향을 파악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양국 정부는 녹색산업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는 MOU를 별도로 체결하고, 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파일럿프로젝트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까 고민하던 중 양국 정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산업과 경제협력 측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인니 녹색기술 교류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는 GBC(그린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제안하게 되었고 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 그린비즈니스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린비즈니스와 법적 용어는 좀 다릅니다. 2010년 6월에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녹색기업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듯이 녹색기업이라는 것은 그린경영체계를 도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감축하며,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그린비즈니스는 녹색기업의 개념에 머물지 않고 녹색기술 그리고 녹색제품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에너지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과 오염발생을 줄이는 녹색산업 측면에서의 관련 사업을 모두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과 인니가 협력할 수 있는 그린비즈니스라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시아시피 인니는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반면, 대표적 개발도상국가로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 보다는 경제발전에 더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측상 국가자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태양광 관련 기술, 광물의 정제기술 뿐만 아니라, IT 관련 기술이 매우 우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하는 그린비즈니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 연료전지분야, 태양광 발전을 위한 솔라셀 관련분야, LED 분야, 바이오매스나 펠렛 등 바이오에너지분야, 수처리 관련분야 등이 대표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기업이 이미 이러한 분야에 인니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또 지금도 시장 진출 모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진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GBC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GBC는 양국의 녹색기술협력의 교량으로, 양국 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녹색중소기업 협력을 주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여 녹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지원할 계획이며, 인니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GBC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구체적 지원정책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GBC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양국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GBC는 13개의 인큐베이팅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회의실과 미팅룸 2개, 그리고 조리와 식사가 가능한 식당까지 보유하고 있어 최적의 비즈니스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요.

입주자격은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여 녹색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다만, 비즈니스 분야가 신재생분야(바이오분야 포함), 온실가스 저감,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분야,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친환경 및 녹색기술 관련분야이어야 합니다.

GBC에 입주하게 되면 타 비즈니스 센터보다 상대적으로 1/3 수준의 저렴한 입주비용을 부담하면서 각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GBC를 통한 지원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공동 녹색 프로젝트 발굴, 양국간 공동출자를 통한 녹색컨소시엄 구성 등 녹색기술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즉, 국제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제품의 현지화 촉진, 공동프로젝트 기반조성 및 조인트벤처 모델 발굴, 한-인간간 녹색기술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최근 GBC 입주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입주할 기업들이 이미 정해졌습니다만, GBC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시로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입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GBC 입주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 소재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글로벌사업처)

로 신청하시면 되고, 인니 소재 기업의 경우 인니 중소기업부(기획국 기획평가 담당관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청하시기 전 사전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이완희 Korea Desk 소장(T.0811-8070-884, wanhee@sbc.or.kr) 또는 저(T.0815-1015-7783, wonoh2003@naver.com)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GBC에 기대하시는 바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GBC는 양국의 정부기관이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서 정부는 동 센터를 한국과 인도네시아 녹색성장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녹색기업의 동남아 진출 허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수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이들 기업들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정도 늘려 나갈 계획으로 현재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인도네시아측도 이에 호응하여 같은 비율로 예산증액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더욱 질 높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 국가 간, 기업 간의 노력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한데요 환경과 관련하여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요.

우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속에서 한마음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도네시아에 계시면서 전기, 가스, 물을 낭비하지 않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며, 저탄소 친환경제품을 애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불필요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녹색일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도네시아의 CDM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은 비즈니스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의 녹색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잘 정착하여 활발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소 망

나에게 있어 소망은 어떤 의미일까 욕심일까 아니면 바람일까
르바란 일상을 벗어나 작은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저 조용히 나와 조물주와 나눌 수 있는 작은 시간들이 아름답습니다



한바탕 축제로 어우러진

제6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광복절이 인도네시아 한인들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살리는 의미와 이국땅에서 동포들 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는 잔치로 거듭나고 있다.

제6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주최로 15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에서 1천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체육대회,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김영선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대독한데 이어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며 ‘공생발전’을 화두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G7체제에서 G20체제로 전환된 것도 선진국과 신흥국, 저발전국, 그리고 5대륙이 골고루 모두 모여 ‘함께 문제를 푸는 세계를 상징한 것’이라며 “G20은 오늘의 위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탐욕경영, 자본의 자유, 부익부, 빈익빈에서 윤리경영, 자본의 책임,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승은호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재외동포로서 분단된 조국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 이어 열린 특별공연에서는 70~90년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한 최백호, 홍서범, 조감경 씨의 노래와 유머로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으며, 출연 가수와 참석자들은 ‘불놀이야’ 를 율동과 함께 불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주제로 열렸으며, 한인들은 출연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성숙한 공연문화를 보여주었고, 수익금 전액은 이웃을 돕는 나눔을 실천했다.

이제 광복절은 이국땅에서 만난 한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할림라마(Halim lama)에서 교민 200여 명이 참석한 골프대회는 전홀 동시 티업인 샷건(Shot Gun)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사 및 사진 제공 : 데일리코리아>

이번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한인기업들이 서울왕복항공권, 대형 텔레비전, 태블릿PC, 상품권 및 식당 이용권 등 푸짐한 상품을 내놓아 많은 참석자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전날 저녁에는 한국부인회가 주최하고 한인회가 후원한 ‘다문화결손가정돕기자선콘서트’가 카르타 발라이 까르띠니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최백호, 홍서범, 조감경 씨 등이 출연해 2시간 넘게 계속된 이날 행사는 ‘우리가 하나 되면’이란



경축! 제66주년 광복절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나라 중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K-pop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불굴의 도전과 성취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창조했듯이 함께 가는 “공생 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시다.

2011년 8월 15일, 대통령 이명박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



제 66주년 8.15 경축행사 및 골프대회 찬조품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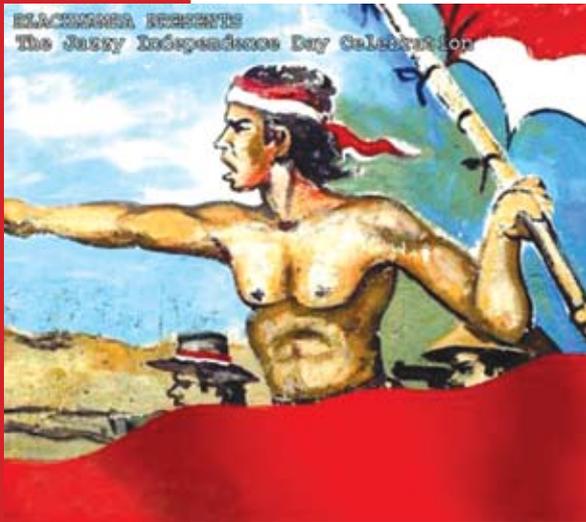
번 번호	성 명	찬 조 품		
		회 사 명	상 품 명	수 량
1	승은호	코린도그룹	갤럭시 탭	1대
2	강호성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블랙베리 핸드폰	1대
3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고급 진주 목걸이 ,귀걸이	2세트
4	구자성	일요신문	상품권	Rp100만
5	김 강	고주몽	식사권 (20만루피아)	10매
6	김광현	평통서남아협의회	디지털카메라	1대
7	김달수	PT. KIDEKO JAYA AGUNG	42인치 LED TV	1대
8	김두련	PT. MIWON INDONESIA	청정원 선물세트	5세트
9	김병철	PT. MISUNG INDONESIA	상품권	Rp200만
10	김상태	SMS GROUP	PUTTER	1대
11	김성국	PT. PERTA SAMTAN GAS	42인치 LED TV	1대
12	김성대	SAMIK INDONESIA	어쿠스틱 기타	2대
13	김송정	PT. UNICON INDO MESIN	디지털카메라	1대
14	김영만	한인니석유주식회사	상품권	Rp200만
15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상품권	Rp100만
16	김우재	KOIN BUMI	쿠쿠밥솥	1매
17		KOIN BUMI	음료수	1200개
18	김원대	LG전자	옵티머스핸드폰	2대
19		LG전자	포토프레임	2대
20	김재민	조선일보	상품권	Rp100만
21	김종현	KOIN BUMI	무궁화 상품권	Rp100만
22	김주범	PT. DELLI MANJU	현미과자	400개
23	김주철	PT. STARCAMTEX	디지털카메라	1대
24	김평수	토박	식사권 (50만루피아)	4매
25	김흥기	PT. BAJU INDAH	디지털카메라	1대
26	박진원	아름다운병원	진료권 (50만루피아)	4매
27	박헌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디지털카메라	1대
28	박훈규	BUMI TOUR	캐디백	1개
29	방재상	워터피아	정수기교환권	1매
30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핸드폰	1대
31	배상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갤럭시 탭	1대
32	배정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노키아 핸드폰	1대
33	서영울	PT. PRATAMA ABADI INDUSTRI	디지털카메라	3대
34	석웅치	PT. DAYUP INDONESIA	상품권	Rp300만
35	송창근	KMK GLOBAL SPORTS	40인치 LED TV	1대
36	신기엽	HANINDO EXPRESS	디지털 카메라	1대
37	신창우	아시아진주	진주목걸이	1개

협찬에 감사드립니다

38	양영연	PT. BOSUNG	갤럭시 탭	1대
39	엄석준	뉴월드 메디컬	상품권	Rp100만
40	우용택	PT. RED CAP INDONESIA	여행용 가방	2개
41	유주완	PT. FEEL BUY INDONESIA	Lock & Lock	45개
42	윤석환	PT. SUNG SHIN INDO	드라이버	1대
43	이세호	재인니땅그랑한인회	상품권	Rp300만
44	이완주	PT. PAN BROTHERS	상품권	Rp100만
45	이종억	대한항공	자카르타/인천 왕복 이코노미 클래스	2매
46		대한항공	자카르타/인천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	1매
47		대한항공	자카르타/인천 왕복 비즈니스 클래스(홀인원)	1매
48	이진호	PT. JINYOUNG	삼봉나와	2박스
49		PT. JINYOUNG	상품권	Rp100만
50	이창훈	PT. SAMTAN INDONESIA	갤럭시 탭	1대
51	이호덕	ROYAL SUMATRA	상품권	Rp100만
52	임만규	삼성전자	40인치 LED TV	1대
53		삼성전자	갤럭시S 2	1대
54		삼성전자	갤럭시 탭	1대
55	임연식	LIM TAILOR	바탁교환권	5매
56	장윤수	HANSARAM TRISAKTI	식사권 (10만루피아)	20매
57	전성현	엘가 포토스튜디오	가족 촬영권 (200만루피아)	1매
58	정병화	PT .LOTTEMART INDONESIA	LED TV 42인치	1대
59	조규철	PT. DONG JUNG	용마 전자밥솥	10개
60	조용우	한국외한은행	자외선 차단제 BB크림	10개
61	차상만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도자기세트	3세트
62	천경삼	경기중앙농협	홍삼최고품세트	3세트
63	최광수	PT. BIGSTAR INT'I TRADING	겨울용 오리지날 양털부츠	2족
64	최대호	키움증권	골프우산	10개
65	최상학	우리은행	32인치 LCD TV	1대
66	최승진	INTI MEGA	디지털카메라	1대
67	최창식	하나은행	음료수	1000개
68	한현봉	재인니보고르한인회	32인치 LCD TV	1대
69	홍사빈	PT. INUS	복합 프린터기	2대
70	황의상	PT. INWHA INDONESIA	대한항공 한국 왕복권	1매
71		가나	식사권 (30만루피아)	30매
72		고목	식사권 (50만루피아)	30매
73		굿딜갤러리	교환권 (300만루피아)	1매
74		굿딜갤러리	교환권 (100만루피아)	1매
75		꽃과 좋은 날	꽃 바구니 교환권 (30만루피아)	5매
76		눈사랑 안경원	교환권 (50만루피아)	4매
77		다미	식사권 (30만루피아)	10매

협찬에 감사드립니다

78	대화	식사권 (30만루피아)	10매
79	로즈마리	1년 회원권	1매
80	마포	식사권 (30만루피아)	5매
81	블루오션	1년 회원권	1매
82	블루오션	이용권 (20만루피아)	11매
83	신농씨 한의원	다이어트 환	2통
84	샤넬미용실	매직고데기	3대
85	설악추어탕	식사권(10만루피아)	10매
86	압구정	식사권 (10만루피아)	10매
87	우리들병원	3회 이용권	5매
88	우먼센스	이용권 (20만루피아)	3매
89	장수대	식사권 (50만루피아)	4매
90	청해수산	식사권 (50만루피아)	4매
91	하나관광	물리아 숙박권	2매
92	헤어팜	이용권 (20만루피아)	10매
93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H-1 (출인원 협찬)	1대
94	휴	음료수	1500개
95	DAMAI INDAH GOLF	2인 골프이용권	2매
96	GADING RAYA	1인 골프이용권	8매
97	HOTEL JW MARRIOTT	숙박권 (2인 조식 포함)	1매
98	HOTEL RITZ- CARTON	숙박권 (2인 조식 포함)	1매
99	HOTEL RITZ- CARTON	2인 뷔페 식사권	1매
100	HOTEL GRAND SAHID JAYA	1일 숙박권	1매
101	HOTEL SHERATON MEDIA	숙박권 (2인 조식 포함)	2매
102	IMPERIAL KLUB GOLF	1인 골프이용권	4매
103	KEMBANG DESA	식사권 (5만루피아)	6매
104	MATOA NASIONAL GOLF&CC	2인 골프이용권	20매
105	MAD FOR GARLIC	식사권 (10만루피아)	10매
106	PISCATOR(한국형 시푸드뷔페)	식사권 (10만루피아)	20매
107	RANCAMAYA GOLF&CC	1인 골프이용권	4매
108	RIVERSIDE GOLF CLUB	1인 골프이용권	8매
109	THE PARK LANE JAKARTA	2인 뷔페 식사권	2매
110	ULTIMO KECANTIKAN	이용권 (300만루피아)	2매
111	가나	도시락	100
112	권명희복집	도시락	100
113	김삿갓	도시락	150
114	수라청	뷔페	150
115	시티서울	도시락	100
116	청기와	도시락	100
117	한강	도시락	100
118	한솔	도시락	100
119	한양가든	도시락	100



제66주년 인도네시아독립기념일을 맞으며



MAKNA MERDEKA 독립의 의미

Yuni Sugandini

Gaung perayaan kemerdekaan Republik Indonesia yang Ke-66 masih terdengar dengan maraknya berbagai macam kegiatan, dimulai dengan kegiatan seremonial, bakti sosial dari masyarakat umum maupun korporat, perlombaan, hingga program televisi yang begitu semarak. Hal ini perlu dilakukan sebagai sarana untuk mengingat kembali sejarah dan sumbangsih para pahlawan dengan menumbuhkan kembali semangat nasionalisme yang tinggi bagi seluruh bangsa Indonesia.

Namun, perayaan kemerdekaan sungguh lebih bermakna bila dilakukan sebagai wujud rasa syukur kepada Tuhan YME yang telah melimpahkan karunia atas perjuangan bangsa Indonesia hingga berbuah kemerdekaan yang dapat dinikmati hingga saat ini.

Tetapi apakah sesungguhnya makna kemerdekaan itu? Saya sebagai generasi muda yang hidup di era mengisi kemerdekaan, tentunya tidak lagi memaknainya sebagai bebasnya bangsa Indonesia secara fisik dari penjajahan bangsa lain, melainkan bebasnya bangsa dari masalah-masalah krusial yang masih membelit seperti belunggu pemiskinan, pembodohan, keterbelakangan, rasa tidak aman dan diskriminasi serta kemerdekaan dalam mengelola sumber daya alam Indonesia.

Lebih daripada itu, dalam dinamika kehidupan berbangsa dan bernegara, adalah merdeka

dari rasa takut dan tidak percaya diri, merdeka dalam menyampaikan pemikiran tanpa merasa terintimidasi, merdeka dalam menentukan pilihan dan tujuan hidup, merdeka dari birokrasi yang menghambat kreatifitas dan inovasi serta merdeka dari rasa apatis terhadap lingkungan sekitar.

Mungkin bangsa Indonesia tengah menghadapi berbagai krisis yang kompleks terutama di dalam negeri. Namun ada satu solusi utama atas semua permasalahan tersebut yaitu bebas dari rasa pesimis yang dimulai dari diri sendiri. Sebuah tindakan nyata walaupun dimulai dengan langkah kecil, jika dilakukan dengan berkesinambungan dan penuh integritas niscaya akan melahirkan optimisme kolektif untuk tetap menyalakan harapan. Jiwa-jiwa muda yang sangat antusias, kreatif dan positif dapat berkontribusi langsung menyumbangkan ide dan pemikiran untuk mencari solusi atas isu-isu sosial yang berkembang dan menyumbangkan tenaga dengan terus hingga dapat menciptakan media atau lapangan kerja baru bagi masyarakat. Kata kuncinya adalah tindakan nyata.

Pada akhirnya, dengan menjadi diri yang sebaik-baiknya, terus belajar dan membangun kualitas pribadi yang tangguh secara mental dan spiritual akan menjadi garda terdepan untuk membawa Indonesia menuju kemerdekaan yang hakiki.

Dirgahayu Indonesiaku. Saya tak akan pernah berputus asa untuk terus mencintaimu.



puncak kibaran BENDERA
1.781.945
tweet dan sms

Untuk pertama kali,
mengerek BENDERA secara NASIONAL
lewat TWEET #17an dan SMS!

**AYO,
KEREK BENDERA
RAME-RAME!**

caranya gampang!

“tinggi kibaran bergantung pada jumlah total tweet dan sms”

AGUSTUS
17
2011

AGUSTUS
17
2011

kirim SMS dengan format: **17an#nama#L/P#pesan anda** contoh: **17an#budi#L#merdekaal**
ke salah satu nomor di bawah ini:
0856 878 17 17 | 0817 17 17 44 | 0821 14 17 17 17

atau..
cantumkan tagar **#17an** pada setiap tweet-mu

tinggi kibaran bendera = $\sum \text{tweet} + \sum \text{sms}$

pantau tinggi kibaran bendera di: **www.17an.org dan @ID_17an**

제 66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 축제의 메아리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의 사회봉사, 경기, 텔레비전 프로그램까지 여러 분야에서 떠들썩하게 펼쳐진다. 이것들은 인도네시아 모든 민족의 높은 민족주의 정신을 다시금 성장시키는 영웅들과 역사를 돌이켜보는 수단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립기념 축제는 인니 민족의 투쟁을 통해 현재까지 즐길 수 있는 독립과일을 은혜로 주신 신(YME ; YANG MAHA ESA)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진정한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독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이다. 독립 인도네시아 민족으로써 분명 더 이상은 다른 민족의 식민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는) 독립국가에서 여전히 가난의 족쇄, 무지, 후진성, 이질감, 불안감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와 민족의 역동적인 삶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위협의 느낌 없이 생각을 전달하는 독립, 삶의 목적과 선택을 확정하는 독립, 창의력을 억제하는 관료 그리고 무관심했던 주변환경으로부터의 모든 혁신이야말로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진정한 독립이다.

“독립 66주년을 맞은 인니 젊은이의 글이다. 식민 시대를 겪지 않은 젊은 세대이지만 독립의 기쁨을 통감하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로 66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당연한 문제를 떠나 역사적 의미와 새롭게 다져보는 각오는 서로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 편집자 -

인니 민족은 나라 안에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만 언급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해결방법이 하나 있다. 다시 말해 자기자신으로 시작된 비판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비록 작은 발걸음의 시작일지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충만하고 지속적인 행동은 희망을 밝히는 집단낙관론을 낳는다. 열정적인 젊은 영혼들의 창의와 긍정은 사회 안의 새로운 일자리 또는 여론을 형성할 정도로 지속적인 힘의 적재, 확대되는 사회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생각 등 아이디어의 제공에 직접 기여한다.. 핵심은 행동이다.

결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강인한 실력을 갖춘 영감과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독립 인도네시아로 나아가는 중요한 가드(guard)가 될 것이다.

영원한 나의 인도네시아. 나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하기 위한 희망을 잃지 않을 것이다.

‘브로모’ 모래의 바다에서 별의 바다를 보다

무슬림들은 금식을 하는 라마단에 여행을 하지 않으므로 관광지가 한산하다는 말을 듣고 즉흥적으로 브로모(Bromo) 여행을 결정했다. 하지만 브로모는 건기가 절



브로모 화산, 주름치마 같은 바톡 산, 뒤로 보이는 스머르 화산

정에 달하는 7월과 8월이 성수기여서, 실제로 호텔 예약이 쉽지 않았다. 이 기간에는 맑은 날이 많아서 일출을 볼 확률이 높고 땅도 질지 않아 이동하기 좋다. 지난 8월 5일 오후에 자카르타 출발. 수라바야의 서머셋 호텔에서 하루 밤을 묵고 6일 오전 9시 브로모로 향했다.

가는 길에 진흙화산이 있다고 해서 잠시 들르기로 했다. 수라바야에서 목적지를 향해 자동차로 30분쯤 가다 보면 왼편으로 10여m 높이의 거대한 방조제가 보인다. 이곳이 지난 2006년에 진흙화산이 분출한 시도아르조(Sidoarjo)군(郡) 뽀롱(Poring) 지역이다. 논 한가운데서 갑자기 유황가스와 진흙이 섞인 고온의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니 논과 마을과 도로까지 뒤덮였고, 정부는 철도와 도로까지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을 뿌렸다.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넓은 진흙화산 피해지역에서는 우리가 찾은 그 순간에도 가스와 뜨거운 진흙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중 일부는 독을 따라 군데군데 나무계단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맞고 있다. 우리 일행을 안내한 가이드는 2만여 명이 집을 잃었으나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가스채굴회사 PT 라벤도 브란다스와 정부에 대한 원망이 섞인 어투로 피해상황을 설명한 뒤 VCD를 내밀며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 가이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샀다.

수라바야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프로볼링고(Probolinggo) 시내를 지나고, 이곳에서부터 꼬불꼬불한 경사길을 1시간 더 달려서 브로모 화산 인근 마을에 도착했다. 험준한 산을 깎아 만든 좁은 도로를 달리다 보면, 나무가 듽성듬성 있는 민둥산과 밭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이 보인다. 우기에는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경사가 가파른 곳일수록 산사태와 홍수에 대비해야 하는데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베어낸 가파른 등성이에 밭을 일구고 사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인다. 꼬불

꼬불한 산길을 차로 오르다 보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귀가 멍멍해지고 관목과 침엽수가 늘어나고 화산재로 인해 주변 풍경이 빛바랜 사진처럼 바뀌면서 힌두교 양식의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부터 뚱거르(Tengger) 부족이 사는 마을이다. 이슬람세력이 커지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산지대로 숨어들었던 힌두교도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마을을 지나 5분 정도 가면 브로모 뚱거르 스머루(Bromo Tengger Semeru) 국립공원 입구가 나온다. 일인당 25,000루피아의 입장료를 내고 입구를 통과하니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면서 우리가 묵을 호텔 입구가 보였다. 수라바야를 출발해 30분 정도 휴식한 것을 빼면 자동차로 약 3시간을 꼬박 달려서 2,300m 고지에 위치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다. 호텔 앞으로 펼쳐지는 브로모 화산과 바톡(Batok)산은 신비함 그 자체다. 웬지 SF 영화의 세트 같은 느낌. 우주인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고, 걸을 때마다 화산재 먼지가 뽀얗게 일어난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시커먼 파리 떼. 현지인에게 고산지대에 웬 파리 떼냐고 물으니, 기온이 높은 낮에만 있고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저녁에는 사라진단다. 정말 해가 기울면서 쌀쌀해지자 파리들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의 기온은 낮에는 섭씨 18도로 반팔로도 견딜만 하지만 오후 3~4시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해가 지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다소 두툽한 옷을 입어야 한다. 낮에는 초가을이고 밤에는 늦가을 정도 되는 것 같다. 현지인들은 점퍼를 입고 그 위에 두꺼운 담요나 망토를 두르기도 했다.

호텔에 체크인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자 프랑스인들로 로비가 빼곡하다. 호텔방이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라마단이라고는 하지만 성수기 주말이어서 서양사람들과 중국사람들 그리고 단식을 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인까지 북적거린다. 우리가 묵은 브로모 빠르마이 호텔은 브로모화산이 보이는 언덕 위에

있고, 여러 개의 단층건물로 구성됐다. 호텔방은 인터넷에 소개된 사진보다 소박했다. 샤워기의 꼭지가 하나여서 찬물만 나오나 했는데, 틀어보니 찬물 뒤에 뜨거운 물이 잠시 나오더니 이어 샤워하기에 적당한 온도의 물이 나왔다. 물이 귀해 보였다. 방안의 모든 물건이 먼지가 쌓인 것 같은데, 청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날아오는 화산재가 쌓인 것. 숙소는 가격이 다양한데 이곳에서 고급호텔은 방 하나에 60만 루피아대 수준이다. 저렴한 곳은 더운물이 안 나온다고 한다.

점심은 호텔 내 식당에서 먹었다. 구운 닭고기와 미고랭 그리고 소또 아얌을 시켰는데 대체로 입에 맞았다. 반면 소또 아얌과 홍차는 미지근하게 나와서 다시 데워달라고 했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 고산지대여서 기압이 낮아 물이 평지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 것. 저기압의 요술은 과자붕지도 풍선처럼 부풀려 놓았다. 또 다른 난관은 주문한 음식이 나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오지여서 그런지 호텔 종업원들과도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번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해돋이 구경과 브로모 화산에 오르기 위해 호텔 프런트에서 35만 루피아를 내고 지프차를 예약했다. 흥정하는 재미를 느끼려면 길에서 짚차 운전수들에게 직접 예약을 하면 된다.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호텔 경비원들이 방마다 돌며 짚차 예약 손님을 깨웠다.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은 가을 날씨 정도라 옷을 두툼하게 차려 입고 마스크를 쓰고 준비한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뒤 4시계 지프차에 올라탔다. 지프차로 산길을 30분 정도 달려가서 내린 뒤 뻘잔자칸(Penanjakan)산 전망대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불빛이 사라지자 까만 하늘에 별의 바다가 펼쳐졌다. 원주민들은 어두운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타라고 권했다. 편도는 2만 루피아고 왕복은 3만 루피아란다.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탔는데 의외로 걷는 것보다 쉽게 산에 오를 수 있었다.

전망대에 오르자 우리보다 먼저 올라온 사람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다.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들과 한국어까지. 먼저 온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해돋이를 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앞을 분간할 수 없던 어둠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시커먼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늘이 검푸른 색에서 붉은 색으로 다시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동안 브로모산과 바톡산 그리고 주변의 봉우리와 마을도 시시각각으로 색깔이 변하고 음영이 바뀌었다. 마침내 하늘이 파랗게 되고 나뭇잎들이 선명한 녹색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 밑에서 기다리던 지프차를 타고 브로모산을 향해 출발. 호텔을 지나 ‘모래의 바다’ (Sea of sand)에 들어서자 말 한 마리가 우리가 탄 차 옆으로 붙는다. 차에서 내려 보니 분화구까지 거리가 꽤 돼 보인다. 말을 타고 분화구 입구까지 왕복하는데 10만 루피아. 브로모화산에 다가갈수록 유황냄새가 진해졌다. 아예 방독면을 쓰고 오르는 사람도 보인다. 화산 중턱쯤에서 말에서 내리는데, 바로 이 지점부터 유황냄새가 더 심해진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분화구에 오르는 계단이 사람들로 꽉 차서 걷는 속도로 조절이 안 되고 밀려다니는 느낌이다. 일행들은 일찍잡치 포기하고, 나 혼자만 200여 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점점 숨이 가빠진다. 분화구 안에는 붉은 용암 대신 하얀 연기만 피어올랐다. 분화구를 내려와 호텔로 돌아오니 아침 7시가 됐다.

흔히 브로모를 영산(靈山)이라 부르는데 정말로 내가 신을 만날 뻔 했다. 분화구에 오르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으나, 다행히 일행 중에 한 분이 천식약을 가지고 있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천식 증세가 있는 지인도 새벽에 전망대에 오르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힘들었다고 했다. 갑자기 떨어지는 기온, 미세한 크기의 화산재 그리고 분화구에서 수시로 분출하는 유독가스로 인해 천식환자들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하산하면서 수바라야로 가는 길 차창너머로... 산봉우리들과 안개가 어우러져 바다 위로 보이는 섬과 같은 해돋이 장관, 시간이 흐르고 해의 위치가 변하면서 하늘과 산과 ‘모래의 바다’의 색과 그림자의 변화, 밤하늘의 ‘별의 바다’가 떠올라 감동의 여운은 쉽게 가지지 않았다.





“당신의 영향력을 키워라”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CEO역량 강화 연수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아시아진출 한국기업 CEO 역량강화 연수가 지난 8월 2일 자카르타 리츠칼튼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3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이 연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이상진 교수(경영학박사)의 ‘조직진단과 조직역량 개발 5WAY기법’, 이승창 교수(경영학박사)의 ‘지속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경쟁우위전략과 마케팅전략’ 등 효율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경영진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오후까지 이어진 열띤 강의에서 이상진 교수는 선입견에 관계된 인간행동을 도입하여 전략과 조직의 관계를 풀어나갔다. 혁신 DNA 도출을 통한 최강 인재조직 만들기 강의였다. 흔히 전략이라고 하면 뭔가 한방에 끝내는 묘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기업전략에서는 ‘적벽대전’ 같은 한방은 없다고 언급하며 경영자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미니 인터뷰 : 구규옥 연수운영처장



이번 연수팀의 지휘관으로 자카르타에 온 구규옥 연수운영처장은,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하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작년부터 새롭게 기획, 시도하는 것으로 아시아지역 현지진출기업의 CEO들을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도 이미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을 다녀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이루어진 이번 인도네시아 교육은 한인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CEO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개최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지난 교육과정을 통해 CEO 뿐만 아니라 현지관리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교육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인니에 진출한 기업들이 인건비가 원가절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노동집약적인 시스템과 현대적 관리이론의 종합으로 새로운 경영기법, 조직관리를 도모하여 좀 더 효율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고 본 연수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피력했다. 특히 “이런 연수와 교육을 통해, 본국에서 아시아 각국에 진출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재외한인사회와 본국의 관계에서 이해와 관심의 표현은 국력과 화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도네시아간 교육외교 본격 가동 - 첨단 ICT 활용교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MOU 체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교과부 대표 : 김웅 장관법무보좌관)는 8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인도네시아간 첨단 ICT 활용교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첨단 ICT 활용교실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은 교육정보화에 강한 의지를 가진 3개국을 선정해 첨단교실을 구축을 통해 교육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7월 MOU를 체결한 콜롬비아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 사업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 교과부는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원연수센터에 첨단 ICT 활용교실을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 교원 정보화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래교실 모델을 공동으로 탐색해 나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교육부 Syawl Gultom(샤왈 굴툼) 교육인력개발 국장은 앞으로 교원연수센터에 첨단 ICT 활용교실이 구축되면, 인도네시아 교원들의 ICT 활용능력 및 교수학습방법이 개선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스마트교육전략’을 발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불가리아, 우루과이 등으로부터 컨설팅 요청을 받는 등,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는 2006년부터 이러닝 세계화 사업으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16개국과 MOU를 체결하고 PC지원, ICT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교육정보화 컨설팅, 이러닝 국제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을 실시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왔으며, PC 지원(23개국, 18,481대), 개도국 교사·교육공무원 연수(27개국, 2,927명), 개도국 이러닝 컨설팅 지원(태국 등 11개국)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MOU 주요내용

(목적) 양국간 교육정보화 상호협력 강화, 증진 (첨단교실 정의)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PC, 서버, 전자교탁, 전자칠판 등 H/W와 S/W, 저작도구, 콘텐츠 개발도구 등으로 구성된 교수학습 공간 (협력내용) 한국은 첨단 ICT 활용교실 리모델링, 교재개발 및 교사연수 지원, 인도네시아는 교실이 설치될 교원연수센터 지정, 교실 제공, 전력공급, 인터넷 연결, 교실운영 인력 배정, 통관시 세금에 관한 사항 지원 등



한국경찰청과 한인회 인니경찰청에 감사의 뜻 전달

주인니한국대사관 김영선 대사와 한인회 승은호 회장, 대사관과 한인회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경찰청을 방문하여 한국의 경찰청에서 보내온 감사서한과 감사장, 한인회에서 마련한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다.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경찰청을 직접 방문한 김대사는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따무르 뿌라도뿐 청장에게 한국경찰청의 감사서한을 전하는 한편 자카르타 시경 수사부와 수사부 1팀에 전하는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한인회 승은호 회장은 한인동포들의 고마움을 담아 패에 새긴 감사패를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최근 한인동포사회에 빈번해진 납치강도사건, 차량절도, 가정집절도 사건들을 인니경찰이 신속히 대응하여 범인을 체포하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을 준 것에 대한 한국 측 감사에 대해 인니 경찰청장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며 언제든지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의 좋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진 환담은 인니의 조사국장이 얼마 전에 한국경찰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야기로 이어지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승은호 회장은 “인니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니 인니 경찰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 며 당부했다.

김 대사는 한국의 경찰과 인니 경찰이 교류, 협력을 위해 주재국 경찰이 한국의 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최근 수사 중인 광산과 선박에 대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협조요청서신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인니 경찰청장은 진실을 따라 해결할 것이며 청장으로써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인니에서 두 번째 근무를 하고 있는 이희성 영사는 현재 인니에 부임한지 5개월이 되었으며, 많은 사건을 인니경찰과 원활한 협조하에 해결한 바 있다. 이희성 영사는 “한인회와 한인사회에서 한국 동포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어 항상 감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대회 - 이제 우리는 통일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의 서남아시아협의회(회장 김광현)가 22일 자카르타 물리아호텔에서 출범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선 주인니한국대사와 김광현서남아협의회장과 서남아 10개국의 임원진이 참석하여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며 통일의 염원을 새롭게 다졌다.

김광현 회장은 환영사에서 “특히 우리 서남아지역은 한국 대외투자의 70%를 차지하는 자원보고 및 미래시장의 주역으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물론 북한 또한 지속적인 외교활동을 펴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욱 중요시 된다고” 말하며 맡은 바 사명에 책임을 다하고 봉사하는 회원이 되자고 임원진에게 권고했다.

출범식에서 4개국 지회장 및 간사에게 대통령임명장이 김영선 대사에 의해 대리 수여되었고, 5개국 부회장에게 서남아협회장의 위촉패가 수여되었으며, 3명의 전임감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대통령의 영상메세지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영상보고에 이

어 임원진 발표와 글짓기대회, 안보강연회 등 15기가 추진할 다양한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

2부 순서에서는 신은숙 국장의 강연에 이어 통일의 노래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며 제15기 민주평통의 의지를 다졌다.

민주평통서남아협의회는 네팔과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 임명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고 문) 현정규(인니), 김수용(인니), 심상만(인도)
- (회 장) 김광현(인니)
- (부회장) 채규준(태국), 봉세중(싱가포르), 황일록(말레이시아), 엄경호(스리랑카), 김명보(인도)
- (지회장) 서영식(방글라데시), 박홍우(파키스탄), 전성호(미얀마), 이경섭(네팔)
- (간 사) 안선근(인니)





반뜰 세관, 한인업체와 간담회

한국대사관과 반뜰 땅그랑한인회가 지난 10일 신입 반뜰 세관장 부임에 맞춰 상호 신뢰 관계 구축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땅그랑 찌꾸빠 소재 신발업체 KMK(대표 송창근)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시자밧(Sidjabat) 반뜰 세관장,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이세호 반뜰.땅그랑 한인회 회장, 이득수 관세관, 관내 한인기업인들 및 반뜰 지역 세관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세관 책임자와 한국기업인들이 각자 소개에 이어 인도네시아 세관의 정책에 대한 소개, 한국 기업인들의 질의 응답 및 공장 견학과 오찬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에 부임한 시자밧 세관장은 앞서 반뜰 세관장을 역임할 때부터 대사관과 한국 기업 등 한인 사회와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자밧 세관장은 “관내 한국기업인들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이 같은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보세구역에 대한 새 규

정이 시행되는 만큼 특히 보세 구역에 있는 기업들은 수입과 생산, 수출 등의 자재와 생산품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창근 부회장은 “조만간 세관 간부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함께 골프를 치고 우호관계를 증진시키자”고 화답했다.

이득수 관세관은 보세사업자에 대한 세관 당국의 공지 사항에 대해, 보세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관 당국이 보세사업권 허가 재연장 시한을 2012년 5월 24일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전 법규정에는 보세구역에 설립된 보세사업장의 보세사업권 법인 존속까지 항구적으로 유효했으나, 개정 후에는 보세구역에 설립된 보세사업자의 보세사업권 허가기간을 매 3년 단위로 신청 및 심사 후 연장으로 변경됐다. 대사관은 오는 9월에 탄중쁘리옥 세관과 한인업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테일리코리아>

사랑의 의료봉사 한인회-의사회-약사회

지난 8월3일과 4일, 반튼주 땅그랑, 찌뜨라라야에 소재한 무지개공부방(고재천, 한글학교)에서는 하얀 가운을 차려 입은 의사와 약사의 손길이 지역민들의 거친 가슴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의료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서울 서초구의사회 박우형 회장과 약사회 김종환 회장의 주도로 시행된 이 봉사활동은 재인니한인회(회장 승은호)가 주최하고 반튼 땅그랑한인회(회장 이세호)가 주관, 한국부인회(회장 박미례) 및 KMK(대표 송창근)가 후원했다. 서초구의사회의 해외의료봉사활동은 작년 자카르타 족자지역 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봉사활동은 작년 서초구의사회의 해외봉사팀에 대한약사회(전국16개 지부 227개 분회) 서초구지회가 합세하여 더욱 큰 규모를 이루었다

의사회와 약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은 작은 종합병원의 옮겨 놓은 듯 한 행사장에서 안과, 내과, 마취통증과, 가정의과 등의 진료와 의약투여, 비타민과 사탕 나눠주며 현지인니인들은 물론 다문화 가정의 한인교포들을 진료했다.



진료를 받은 환자 중 한 가정주부는 안과 진료를 받고 약과 비타민, 안경을 받아가면서 “눈이 나빠도 안과에 가지 못했는데 영양제에 안경까지 받아가니 기쁘다” 고 진료가 며칠 더 연장되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도 안경을 받아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고마움을 감추지 못했다.

땅그랑한인회 이태복 수석총무는 “진행 과정에서 세관의 까다로운 의약품 통관절차로 일부의 의약품만 반입돼 처음 계획했던 500-600명에 못 미친 200여 명의 진료로 마무리하고 밀려오는 현지인들 보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고 말하며 다른 행사와는 달리 의료봉사활동은 현지의 허가를 얻어 의약품을 통과시켜야 하는 등 경험부족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겪은 어려움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먼 나라 인도네시아까지 순수 의약품을

가지고 와서 사랑의 활동을 펼친 의사회, 약사회에 감사드린다. 또한 한인회와 부인회, 한인기업이 다문화 가정의 소외된 현지인들과 직접적인 소통과 교감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자료제공 :
땅그랑한인회>



13년 동안,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저 좋아서만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랄까
 의식이랄까
 사명감이
 한층
 컸습니다....!

<사공경 원장 개인인사말 중에서>



사단법인 한·인니 문화연구원 개원

한-인도네시아 간 민간 문화 교류와 연구의 허브로 발전이 기대되는 사단법인 한·인니 문화연구원(이사장 김상태)이 9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자카르타 라구난 지역 한인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Graha STK 빌딩 내 연구원에서 열린 한·인니 문화연구원 개원식에는 김영선 대사와 김상태 이사장, 사공경 초대 원장, 송창근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한상재 한인예총 회장 등 한인과 인도네시아 문화계 인사 등이 바티클을 입고 참석해 양국간 문화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김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현판식, 김영선 대사 축사, 사공경 원장 인사말에 이어 누사똥가라 전통 현악기인 세산도와 대나무 악기인 앙글룽 공연 및 샤프뮤직스쿨 심상준 원장의 클라리넷 연주와 성악가 바리톤 안영수 씨의 피날레로 양국 문화 교류의 첫 무대를 선보였다.

김영선 대사는 축사에서 “외교에는 정치와 경제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문이 문화 외교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도네시아 역사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만 본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간	월
9:00-10:30	Bahasa Indonesia untuk Class Dasar (Ibu Kusuma)
9:00-11:00	Tari Jawa (Ibu Martini)
10:00-12:00	한국어(김석주)
11:00-12:30	
13:00-15:00	Angklung(Arumba, Bamboo Music) (Pak RiuhGumilang)
14:00-16:00	

인터넷접수: Lovekoin@hotmail.com

이어 김 대사는 한·인니 문화연구원이 문화의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양국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장이 돼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여년간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크게 이바지해온 ‘인니문화연구회’를 토대로 한인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자 문화연구원을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연구원은 한-인니 간 문화교류 주관·중개, 교민 대상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교육, 인도네시아인 대상 한국문화 소개·교육, 한-인니 문화기관·단체 연결 등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전래동화를 그린 벽화와 자바풍의 목각 벽면 등으로 장식된 문화연구원은 오는 9월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도네시아어 강좌와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 및 문화탐방, JIKS 아카데미, 앙글룽, 자바음악 등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

<기사제공 : 데일리코리아>

사단법인 안*인니문화연구원 강의 프로그램 2011년 9월 14일 개강 (제1기/ 8회)

화	수	목	금	토
인니어초급 I (조은숙)	JKS아카데미	인니어 초급 I(조은숙) Bahasa Indonesia untuk Class Dasar (Ibu Kusuma)	JKS아카데미	
한국어 (김현숙)	한국어(K-POP)(정승관)	한국어(김현숙)	Tari Jawa (Ibu Martini)	한국어(K-POP) (정승관)
	한국어(김석주)			
인니어 초급 II (조은숙)	JKS아카데미	인니어 초급 II(조은숙)		
한국어(강미경)	Angklung(Arumba,Bamboo Music) (Pak RihGumilang)	한국어(강미경)		
Java Music SITER (Pak Benyamin)		Java Music SITER (Pak Benyamin)		시창작교실 (이상기)

박윤정 pyjkics@gmail.com // 사공경 sagong@hotmail.com (0816-190-9976)

코린도장학재단

인니 대학교에 장학금 지원

1998년부터 매년 인니 대학의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는 코린도 장학 재단은 8월 1일 코린도 사옥 대회의실에서 인니 대학생들을 위한 2011-2012 학년도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인도네시아대학교, 가자마다대학교, 국민대학교, 보고르농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모두 22명이다. 코린도 그룹의 장학재단 정무용 이사장은 학생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대학교의 Agung 처장은 코린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했으며 Kristine 인도네시아 대학교 한국어 과장은 매년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코린도 그룹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대표하여 한국어로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 후에는 한국 진출업체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였다.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사무실 현판식 갖고 정상 업무에 박차

코리아센터 내에 사무실을 갖게 된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는 지난 4일 현판식을 갖고 정상 업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양영연 회장을 비롯해 김우재 월드옥타 이사장, 한인회 김재민 사무국장, 대한체육회 부회장들이 참석하여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가 한인사회 단합과 발전의 큰 힘이 되어주기를 당부하며 장도를 축하했다.

코리아센터는 구 대사관 공관 옆에 위치하며 체육회 사무실은 한인문화센터 1층에 자리하고 있다.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는 체육과 관련된 업무로 방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환영이며 조만간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부인회, 다문화 결혼가정 돕기 자선콘서트 성황

- 한인사회, 성숙한 공연문화
- 정착과 나눔의 불씨 지펴

14일 저녁 자카르타 발라이 까르띠니 대강당은 종합예술인 홍서범 씨 등 초청가수들의 열창과 유머로 관객의 폭소와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재인니한국부인회가 주최하고 한인회가 후원한 ‘다문화 결혼가정돕기 자선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한인들은 70~90년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한 최백호, 홍서범, 조갑경 씨의 노래와 재미있는 이야기에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며 기분 좋은 저녁시간을 보냈다.

2시간 넘게 계속된 ‘우리가 하나되면’이란 주제로 열린 자선공연에서 한인들은 공연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성숙한 공연문화를 보여주었고, 수익금 전액은 땅그랑 소재 무지개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고재천 목사와 불우이웃을 위해 전달했다.

고 목사는 “2010년 문을 연 무지개 공부방의 상가건물(Ruko) 임대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 더 이상 이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자선행사의 지원금과 앞서 다양한 후원자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모아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공부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부인회의 박미례 회장은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다”며 “이번 행사가 한인사회의 자선의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민 양수려 씨의 매끄러운 사회로 진행된, 콘서트의 첫 무대는 80년대 그룹사운드 ‘옥스80’의 리드 싱어 홍서범 씨가 ‘불놀이야’로 열었고, ‘가난한 연인들의 기도’ 등 6곡을 특유의 입담을 섞어가며 불렀다. 이어 홍서범 씨의 부인인 가수 조갑경 씨는 자신의 히트곡 등 3곡을 관객들과 함께 불러 장내 분위기를 띄웠고, 부부가 듀엣으로 ‘내 사랑 투유’를 불러 금슬을 뽐냈다.

70년대 한국 가요계를 풍미했던 가수 최백호 씨는 ‘영일만 친구’,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등 자신의 곡과 나훈아의 ‘영영’과 윤시내의 ‘열애’ 등 다른 가수들의 히트곡 등 무려 14곡을 소화하는 가창력을 자랑했다.

이날 공연 시작에 앞서, 참혹했던 한국전쟁부터 변영의 현재까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관한 영상물이 상영되어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기사 및 사진 제공 : 데일리코리아>



우리은행, 15년 연속 인도네시아 최우수은행 선정



서는 “2011년 그룹별 경영성과 최우수 Top 3 은행”을 발표하였는데, 우리은행이 그룹내 1위를 차지하였다. 총 9개 그룹으로 나누어 재무 실적과 경영 효율성 부문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총점 5.0 만점에 4.9점을 획득하여 120개 은행 중에서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우

우리은행(id.wooribank.com, 은행장 최상학)이 한국계 은행 최초로 “15년 연속 인도네시아 최우수은행”과 “2011년도 1위 은행”으로 선정되었다. 금융전문지 Infobank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내 은행경영평가결과 인도네시아 최우수은행으로 우리은행을 포함하여 총 71개의 은행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1996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15년 연속으로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된 4개 은행에 우리은행이 포함되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ABFI(은행연합회, Asian Banking Finance & Informatics Institute of Perbanas)에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최상학 은행장은 연이은 수상에 대해 “그동안 우리은행을 사랑하고 격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전해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우리은행이 「한국금융의 대표은행」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에서는 이번 수상을 기념하고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8월 중순부터 특판예금과 고객사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한인방송 K-TV, 인도비전과 채널 공급계약 체결



자카르타 소재 한인방송 K-TV가 인도네시아 최대 위성방송 사업자인 인도비전과 채널 공급 계약을 맺고 오는 9월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방송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도 K-TV를 통해 뉴스, 드라마, 쇼 오락 등 다양한 한국의 최신 콘텐츠를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다. K-TV 박영수 대표와 인도비전 한디안또 대표는 지난 8월 1일 인도비전본사에서 조인식을 갖고 향후의 방송 서비스에 대해 합의했다. 인도비전은 약 8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INDOSTAR-II 위성을 통해 100여개 채널을 방송하고 있는 인도

네시아 최대의 위성방송 사업자이다. K-TV는 전국방송과 함께 각 지역 한인회의 현안과 활동소식 등을 뉴스로 편성해 바빔, 메단, 반둥, 족자, 발리, 수라바야 등 13개 한인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지방한인들 사이의 정보 교류의 창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인대상의 정보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한인들의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V는 향후 텔콤비전 케이블과 위성까지 채널 공급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K-TV의 인도비전 정식 방송은 9월 1일 시작하고, 9월 한 달 간은 프로모션 기간으로 모든 인도비전 가입자는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

코이카, “인니 수도권 물부족 해소한다” 까리안담 도수로 및 용수공급시설사업 최종 워크숍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9일 반뜰주 ‘까리안담~서르뽕 간 도수로 및 용수공급시설 마스터플랜 및 타당성조사 사업’ 최종 워크숍을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 사업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세랑 소재 르디안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정지원으로 건설되는 까리안담의 수자원을 이용하여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Jabotabek)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 도수로 및 정수장 시설계획, 민관협력사업(PPP)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KOICA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14개월간 총 1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시행업체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동기술개발, 신우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최종성과를 발표하고,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도사업소 등의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마련됐다.



최종보고서 초안에는 까리안담 개발 후 확보되는 초당 10.6t(90만t/1일)의 수자원을 자카르타와 반뜰, 서부자바 등 1개 특별주와 2개 주 그리고 땅그랑, 세랑, 쥘레곤, 르박 등 4개 시와 4개 군 급수 구역에 1단계로 2020년까지 일일 45만t, 2단계로 2030년까지 나머지 용수를 공급하고, 이러한 용수공급에 필요한 최적시설계획으로 도수로 47.9km 및 정수장 5개소를 제안하였으며, 시설 중 일부의 설치를 위한 재원은 PPP에 의한 민간의 참여로 가능하다는 결과를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코이카는 2006년 ‘까리안담 타당성조사 및 세부설계’는 물론 이번 사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더불어 수도권 지역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댐개발과 더불어 도수로, 정수장이 건설되면 수도권 약 400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EDCF 차관과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으로 까리안담 건설사업을 시행기로 양국간 합의하여 조만간 착공예정이다.

코이카 지원에 의한 이번 개발조사 사업이 2011년 8월 완료되면, 도수로 및 정수장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재원확보 및 최적의 개발방안도 제안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도권의 심각한 물부족 문제를 한국의 유·무상 원조 및 민간투자로 해결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물분야 사업수요가 높은 인도네시아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와 더불어 원조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람소주, 네슬레(Nestle)와 고급생수 사용계약 체결

바람소주가 세계 최대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e)의 고급 생수로 만들어진다. 바람소주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물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를 사용한 소주 생산을 추진해 왔다. 하영배 부장은 “최근 로컬시장에 불고 있는 바람소주의 가능성을 알아본 세계 최대 식품기업인 스위스의 네슬레(Nestle)와 최근 계약을 완료하고 소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분분석 및 샘플링 작업이 완료되었고 시판용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네스카페, 마일로, 페리에 스파클링 워터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류업계에 (간접)진출은 처음입니다”라며 2011년 8월초부터 유통되는 바람소주는 “네슬레 Pure Life” 고급 생수로 만든 프리미엄 소주이지만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디자인도 업그레이드되어 기존의 앞면 라벨 부착 형식에서 앞/뒤 양면 부착 형식이며 방수기능 강화(코팅)와 바코드를 새롭게 삽입했다.

그의 이야기 HESTORY(HIS+STORY)

-인치역 개인전



의 그림에서 전통과 경험과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는 문화적인 층격과 제작의도를 알아주면 고맙겠다고 말한다.

인치혁 화가는 3년 전부터 숫자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전시회 작품들도 숫자들을 소재로 시간의 중복과 역사성을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치혁 목사는 화가다. 화가 인치혁 목사는 시간 속에서 버려진 이질적인 재료들마저 모아놓고 혼합하여 그가 사모하는 그분의 음성을 형상화시켜 놓았다. 3번째 개인전이다.

HESTORY(HIS+STORY)연작, WHO AM I, I AM I, HE & I, THE SOUND

인치혁 화가는 목사다. 목사 인치혁 화가가 개인전을 열었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에는 숫자를 재료로 취한 최근 작품 40점이 전시되었다.

다이나믹하게 색감이 어우러진 화면이 있는가 하면, 백색의 단순한 화면 위에 지나간 시간의 그림자가 숫자의 형상으로 아련하게 녹아들어 있다.

“불협화음으로 화음을 이루고 있는 이질적 재료들의 만남, 그들의 공명 속에 HE(그 분)의 음성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증거의 도구로 그림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라고 배경을 설명하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언어로 선택한 자신



한국문화원의 문화산책

인재 손인식의 재미있는 동양화 읽기

“그림을 보는 이가 ‘나도 아겠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작가들은 수십 년을 지내는 것”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의 <문화산책> 첫 강의가 인재 손인식 선생에 의해 열렸다. 8월 19일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이날 강의의 주제는 ‘재미있는 동양화 읽기’ 였다.

‘동양화’ 라는 명칭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80년대쯤 ‘한국화’ 로 개칭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서 ‘회화’ 라고 칭하자는 제3의 안이 나오기도 했으며 현재는 3가지 명칭 모두를 혼용하고 있다고 명칭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서두가 열린 강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르에 대한 이해

동양화 역시 서양화와 다르지 않게 모든 사물을 소재로 하므로 장르의 구분은 서양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

제일 먼저 재료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림을 그릴 때 동양화는 문방사우를 사용하고 서양화는 캔버스와 물감을 사용하므로 붓의 형태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은 철학과 사상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양화가 두꺼운 선과 강렬한 면으로 사실적 표현이라면 동양화는 은유와 자연합일의 사의적이다.

- 동양화 감상

산수화를 중심으로 근대육대가(소정 변관식, 심산 노수현, 심향 박승호, 의재 허백련, 이당 김은호, 청전 이상범)의 작품세계와 겸재 정선의 작품을 비롯한 국보 작품들, 현대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

채색화, 인재 선생 본인의 작품, 북한의 작품, 그 외의 개성과 작품 등을 개괄하며 작품에 담긴 시대정신과 작가정신을 조명했다. 인재 선생은 강의 중에 “그림을 보는 이가 ‘나도 하겠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 작가들은 수십 년을 지내는 것” 이라고 많은 통찰과 혜안을 거친 후에 담백해지는 화공의 세계를 보여주며, 오늘을 계기로 많은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다. 감상의 마지막 순서로 좋지 않은 그림을 대비하여 설명함으로써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에 더욱 이해를 도왔다.

- 세한도를 통해 본 문인화의 이해와 동양화의 정신
문인화를 대표하며 한국의 정신을 대표하는 추사 선생의 세한도(국보 180호)에 내재된 의미와 그림에 담긴 발문을 중심으로 얽힌 얘기를 흥미롭게 풀어보았다. 동양화, 특히 문인화는 문인지화, 즉 문인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림을 가리키며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간결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되 강렬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고 한국 문인화에 스며있는 선비정신을 설명으로 강의를 마친 인재 선생은 손수 붓을 잡고 그림의 기초 이론을 보여주며 동양화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깝게 대해보라고 권했다.





고 장주익 씨의 명복을 빌며...

2011. 8. 16.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작고 허름한 장례식장에서 고 장주익 씨의 영결식이 조출하게 거행되었다. 가족이나 친지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영결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분들과 대사관, 한인회, 한국부인회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봐주었기에 육신은 이미 싸늘하게 식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온기를 안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고 장주익(61세) 씨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한지 10년이 되는 사람으로 오래 전에 가족과 헤어진 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살아왔다. 그러던 중 위/장 종양 및 육창 등 합병증으로

매우 위독하여 한국 병원으로 후송하여 처치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 5개월여의 투병생활과 2개월간의 입원치료(동부자카르타에 위치한 시립병원)는 주위분(김기방, 김장영 외)들의 도움이 있어 어렵게나마 이어졌으나 긴급한 상황에서 개

인의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움의 한계에 부딪힌 이들은 모 인터넷사이트에 절박한 글을 올리고 후원계좌를 만드는 등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노력으로 대사관과 한인회가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으며, 대한항공 측에서도 환자 후송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던 8월 7일, 장 씨는 끝내 더

버티지를 못하고 운명하였고, 그 뒤에는 누군가가 계산해야 할 많은 병원비가 남아있었다.

대사관과 한인회가 나서고 처음부터 장 씨를 도와줬던 김기방(보고르농원), 김장영(비원레스토랑) 씨는 물론 한상재(린두알람, 1000불), 강석순(한솔레스토랑, 300불) 씨 등 뜻있는 분들의 나눔이 이어졌다. 이 분들의 온정에 감사드린다.

인니동포사회는 벌써 40년이 지나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4만이 넘는 동포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들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몇 배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질병은 최악의 고통이다.

이번 고 장주익 씨의 영결을 계기로 공동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공동의 온정으로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한민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점점 비대해지는 한인동포사회를 대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며 한인회에서는 이를 역점사업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함은 물론 동포 개개인은 나와 내 가족의 문제로 자각하여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려할 때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지는 목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단일창구를 기대해본다.



문화회관 이용안내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지당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인
(한인회 자문변호사)

HP> 0816.1911.245

Tel> 021.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니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1.520.1915

핸드폰> 0811.183.3164

jkt_kimhoil@msn.com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무상원조 통한 안-인니 동반자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의 중심
1992년 사무소 개설 이래 2010년까지 총 1억5백만 달러 무상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박대원 이사장)은 1991년 4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형 사업,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견, 개발조사, NGO지원, 재난복구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09년 수마트라 땅강 지진 긴급구호 현장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래 연 6~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도 3천1백만 명이 극빈계층으로 최저생활을 하는 등 빈부격차, 자연재해, 정부 거버넌스 불투명성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KOICA 최성호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빈곤완화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전략을 선택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장기 개발계획 및 최근 발표된 ‘마스터플랜 2011-2025’의 측면지원을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면서 전체적인 빈곤감소를 유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KOICA는 1992년 사무소 개설 이래 2010년까지 총 1억5백만 달러의 대 인도네시아 무상원조를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프로젝트 5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3건, 개발조사 1건, 국별연수 4건, 봉사단파견, 국내초청연수, NGO지원 등의 사업 분야에서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19년간 42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1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특히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등 환경분야 지원과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국가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ICT분야 인력 양성 및 전자정부 기반 구축 지원과 정부혁신역량강화 등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향상 및 효율성 제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카리안-세르퐁간 용수공급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결과보고 워크숍

또한 인도네시아의 정책입안자 및 기술인력 등을 초청하여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국내초청연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연간 130명 이상의 연수생이 초청되어 지금까지 초청연수생 규모가 2,000명을 넘었으며, 연수생 동창회를 통해 친한인사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관세평가, 조세정책개발, 공무원 반부패 역량강화,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 및 지역개발 과정 등 40개 과정에 약 140여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국내 14개 대학에서 국제개발학, 공공정책학 등 석사학위 스칼라십 프로그램에 연수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OICA 인도네시아홈페이지(www.koicaindonesia.org) 및 연수생 홈페이지(www.iaki.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수생 동창회의 밤

한편, World Friends Kore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연간 100여 명 이상의 KOICA 봉사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깔리만탄 등 전국적으로 봉사단원들이 파견되어 한국어교육, 태권도, 유아교육, 컴퓨터, 미용, 디자인, 원예, 작물재배, 수산양식, 산림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지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과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 KOICA 봉사단 현장사업 '친환경 ICT 센터 구축' (깔리만탄 폰티아낙 교육국)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인도네시아와 공유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를 공여국과 수원국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국가발전의 진정한 동반자적 파트너십 관계로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원조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KOICA 인니사무소 제공>

2011년 KOICA 대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 내역

지원프로그램	사업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환경보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사업(2010-2011)
	• 에너지, 환경, 천연물질 연구소 건립사업(2010-2012)
	• 한-인니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2008-2013)
정부행정능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지원 프로그램	• 인도네시아 정부혁신 역량강화사업-2차(2009-2011)
물부족 해소를 위한 종합수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	• 까리안-세르퐁간 용수공급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사업 (2010-2011)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 한-인니 산림바이오매스 개발협력사업(2009-2012년)
	• 연료전지 활용 발전소 건립 시범사업(2009-2012)
	• 팜오일 활용 바이오에너지 · 부산물생산사업(2009-2012)

한국 토종 국제 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한참 수업이 진행 중이다. “여러분 같이 어린 사람을 아동 혹은 어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동에게도 권리라는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럼 우리 어린이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 있어요.”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합창으로 대답한다. “우리에게도 존중받아야할 권리가 있어요.”

또 다른 자카르타 초등학교의 교실, “여러분, 새천년 개발목표(MDGs)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살고자 만든 전 세계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국 아동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은 약속을 한다. “저도 나눔에 동참할 거예요”, “저도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위 프로그램은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Yayasan Gugah Nurani Indonesia)가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 과 ‘세계시민교육’ 의 모습이다. 이 모든 활동은 권리옹호(Advocacy)사업의 일환이다.

굿네이버스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한국 토종 국제 구호개발 NGO' 이다. 1991년 창립된 굿네이버스는 2011년 20주년을 맞이하였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국내 40여 개 사업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결식아동 지원사업과 더불어 대북지원 사업을 이끌었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대국민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모금된 예산은 세계 25개국의 지역개발 및 빈곤 가정 지원에 쓰여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세계 각처

에서 발생하는 긴급구호활동을 위해 어느 곳이든 달려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도 긴급구호로 인연을 맺었다.

2004년 12월 말 갑작스런 지진해일로 인해 아체주를 중심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야 했다. 굿네이버스는 즉시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긴급구호팀을 투입하였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아체주 므라보시에 자리를 잡았다. 당시 장기재건사업이 필요하였기에 2006년부터 2년간 코이카 지원을 통해 므라보시를 중심으로 식수개발, 화장실 재건 및 직업훈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3년간의 재건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2008년 자카르타에 본부를 설립하였다.



2011년 7월 15일, 수까부미의 낭거랑 마을, 수도 시설 완공에 대한 작은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한 기업체 후원으로 이 마을 700가구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고 집집마다 편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마을은 2010년에는 홍수로 끊어진 다리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굿네이버스 지원으로 임시 다리를 연결할 수 있었다. 올 하반기에는 양, 염소를 굿네이버스로부터 지원받아 새끼를 낳고 이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이 굿네이버스가 진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모습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본인들의 문제점과 욕구를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굿네이버스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

진한다. 화장실 개선, 식수개발 등 기본환경 개선사업과 농업개발과 같은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발생하는 것이 목표이다. 물론 자카르타, 메단 등 도시빈곤 지역은 소점포 운영, 기술교육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누구나 돈을 쓸 수 있도록 신용조합을 준비중에 있다.



굿네이버스의 모든 사업은 아동이 최우선이 된다.

지역개발사업 역시 아동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이다. 2011년 8월 현재,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보고르, 메단, 아체 등 10개 사업장에서 약 5,000명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과 각 아동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뿐 아니라 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도서관 지원, 화장실 개선과 같은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아울러 각 사업장에 아동권리센터를 운영하여, 영어, 컴퓨터 등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로 진행된다. 현재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는 100명이 넘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지역, 자신의 마을을 위해 아동교육,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때로는 노력봉사자 자신들의 시간을 들인다. 거저 받기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점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에 국적을 초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 개방을 준비중이다. 한국인의 참여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가 가야할 길은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는 아래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권리옹호사업 확대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에 대한 아동권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1년 전국 100개 초등학교에서 아동권리 옹호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3일 인도네시아 어린이날에 있었던 ‘대통령에게 소원을 말해요’ 행사(한인뉴스 8월호 37쪽 참조)도 아동권리 옹호사업의 연장선이다. 향후 아동권리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2. 소득증대사업 확대

NGO가 말하는 지역개발사업은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굿네이버스는 지역주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내 개인 및 기업체 참여활동 확대

현재 90% 이상의 예산이 한국 및 일본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내에서 개인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1인당 월 100,000루피 이상의 후원회원이 되면 인도네시아 아동을 후원할 수 있다. 후원회원에게는 사업과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재 기업에 대한 참여활동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한국에서 보편화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의 일환이다. 2011년 한 해 한국의 4개 기업이 특정 사업에 대한 지정기탁금을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에 지원하였다. 만일 인도네시아 주재 기업이 동참한다면 예산 지원 뿐 아니라 현지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처럼 언젠가 인도네시아도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 이 일에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가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굿네이버스인도네시아 채공>

- 후원 문의 : 박동철 지부장(0813-9638-6654)
- 후원 계좌 BCA 8310008282
우리은행 DDA 913056575 (USD)
[Yayasan Gugah Nurani Indonesia]

대련한국국제학교와 교류협력협약식(MOU) 체결

7. 18(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종복)와 대련한국국제학교(교장 이조복)는 중국 대련에서 양 교의 우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교류 및 교육환경 공유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국제적 시야를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류협력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서는 연 1회 이상 양교 학생 및 교직원 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정기적 만남과 통보를 통해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행사로 여름방학을 맞이한 JIKS초등학생 11명이 선종복 교장, 인솔교사의 지도로 중국 대련, 고구려 유적지 및 백두산 일대를 12일 간 (7월 18일~29일) 방문하였다. 모델학교, 무술학교, 밀랍박물관 등 진스탄 국가 5급 풍경구를 탐방하였으며, 안중근기념관과 여순감옥 및 여순박물관 등을 견학하였고, 환인 및 번시동굴 탐방을 하였다.

또한 일정 중 3박 4일은 고구려 역사 유적지 탐방 및 백두산 등반을 하였다. 단동, 압록강, 광개토태왕릉, 장수왕릉, 국내성, 환도산성, 5호분, 고분군, 백두산천지, 금강대협곡, 고산화원 등을 견학한 학생들은 실제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에 서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겨울에는 대련한국국제학생들이 이곳 자카르타를 방문할 예정이다.



Family Volunteer Camp 휴가와 봉사활동을 동시에



봉사와 나눔의 삶을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Family Volunteer Camp'를 가졌다. 수까부미 가나안농군학교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이번 캠프는 방학 중, 2박 3일 일정으로 1기(7.22~24), 2기(8.19~21)에 걸쳐 다섯 가족씩 15~20여명이 각각 참여하였다. 과파야 묘목 심기를 통한 근로

체험은 물론 현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동요, 태권도를 가르치며 한국을 알리고 게임과 운동을 함께하는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자매결연도 맺고 성의를 모아 선물과 장학금도 전달하였다. 이번에 처음 기획된 JIKS의 'Family Volunteer Camp'는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소질 계발을 통해 더욱더 유익하고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JIKS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눔과 봉사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고아원 일일 봉사 다녀왔어요 JIKS 학부모샤프론봉사단과 함께

방학을 맞아 지난 8월 16일(금), 학부모샤프론봉사단(총단장, 장문선)과 학생, 총 70여 명으로 봉사팀을 구성하여 Kemang에 있는 고아원 'YAYASAN SINAR PELANGI JATIBENING'으로 일일 봉사를 다녀왔다.





JIKS, '2011 KOREAN DAY' 개최 예정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종복, 이하 JIKS)는 9월 16일(금)에 '2011, KOREAN DAY'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민속 축제 성격으로 진행될 'KOREAN DAY' 행사는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마당으로 진행된다. 한·인니 전통 문화 예술 공연, 문화 예술 체험마당, 밴드와 댄스 공연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교민사회의 구심력을 높이는 한편 현지 학교와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주재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JIKS 가족은 물론 교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일시 : 2011년 9월 16일(금), 9:30~15:30 * 홈페이지(www.jiks.com)

행사 일정

시 간	축 제 일 정		비 고
09:30 ~ 010:00	개 회 식	1)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2) 내외빈 소개 3) 학교장인사 4) 내외빈 축사 5) 행사안내	
10:00 ~ 11:30	문 화 공 연	① 한국을 알리는 영상 ② 해동검도 시범 공연 ③ 인도네시아춤 공연 (9학년 학생) ④ SMA68 공연 ⑤ 락밴드 공연 ⑥ 락댄스 공연 ⑦ 한국전통춤 공연 ⑧ UI대 초청 공연 (사물놀이, 부채춤) ⑨ 7학년 사물놀이 공연	
11:30 ~ 13:00	점 심 시 간		식사, 바자회
13:00 ~ 13:20	고적대 공연	SMA 68	미정
13:20~ 15:00	체 험 활 동	1) 전통놀이 2) 사물놀이 3) 서예 쓰기(이름쓰기) 4) 태권도, 해동검도 배우기 5) 전통음식 만들기 6) 태극기 그리기 7) 바딕그리기 8) 양끝롱 배우기 9) photo zone(한국여행, 한국의 가족 사진등)	강당교실, 운동장,
15:00 ~	폐 회 식	북터뜨리기, 한바패, 사물놀이 동아리	운동장



자카르타국제학교(이하 JIS)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작년 학기 말부터 여름방학 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교내식당을 새로 짓고, 음식을 제공하는 케터링회사도 교체했다.

작년 12월 학교측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음식의 질, 한정된 음식종류, 음식 티켓을 사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리고 건강한 음식의 종류가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의 응답은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학교측은 교내 식당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교내 식당을 교체하자는 의견은 2009년 10월부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케터링을 맡을 적합한 기업을 찾지 못해 이 계획은 연기되었다. JIS는 그 동안 Pangansari Utama라는 인도네시아 케터링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다가 Head of Business Development인 Viven Brelsford가 학생들이 더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Sodexo라는 새로운 케터링 회사를 찾았다. Sodexo는 프랑스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22위인 사업이라고 한다. (Sodexo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은 이 주소에 있다 http://www.sodexo.com/group_en/default2.asp) Sodexo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0여 학교의 학교식당을 맡고 있는데, JIS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Sodexo와 계약을 맺었다.

학교측은 더 깨끗하고 유쾌한 공간으로 교내 식당을 탈바꿈시켜 개장하였다. 교내식당을 더 위생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래 야외였던 1층 식당도 유리벽과 에어컨시설로 바꾸었다. 보통은 9

개월이 걸리는 프로젝트지만 500명의 근로자들이 밤낮으로 일해 3개월 안에 끝냈다. Wantilan(교내식당 이름)과 Vive Cafe 등 학교의 식당과 학교카페를 건축하기 위해 총 USD 260,000이 소요되었다. Sodexo는 원래 JIS 케터링을 맡았던 Pangansari Utama 직원들 중 30%를 재고용했다. 또 케터링이 Sodexo로 바뀌면서 학교는 전체 캠퍼스를 무전(無錢)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ID 카드나 방수팔찌를 사용해서 음식을 사고, 사물함도 열는 등 ID 카드와 방수팔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학교는 새로 바뀐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념으로 학생들의 ID 카드에 IDR 250,000를 넣어주었다.

새로운 음식을 접할 수도 있고, 더 깔끔해진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새로 생긴 학교식당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 점심시간 때 음식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불만이 많다. 학교측은 새로워진 교내식당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고맙다며 시간이 지나면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들도 증가할 것이니 수도 늘어나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했다. 또 교내식당을 새로 열었을 때 이슬람 금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이 평소보다 힘이 부치니 현지 직원들의 입장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주문한 제품이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아서 음식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다.

많은 학생들은 교내식당이 cafe 같이 폭신한 소파도 있는 색다른 분위기가 좋다고 새로운 교내식당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또 각 음식에 대한 칼로리와 nutrition fact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대에 못 미쳐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알아 본, 건강검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종합검진이 필요한 사람

-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경우
- 얼굴색이 창백하거나 두통, 현기증이 있는 경우
 - 갈증이 심하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
 -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경우
- 복부불쾌감이나 변비,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
 - 가족 중 고혈압, 당뇨병, 유방암 등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경우

◇ 건강검진, 본인에게 적합한 검사항목이 중요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장질환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10위안에 당뇨병,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이 포함돼 있다. 이는 평소 꾸준한 자기관리와 정기검진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다. 우리 신체에는 이상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내오는 장기도 있지만 간, 폐 등과 같이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들도 많이 있다. 이들 장기들에 대한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건강검진 밖에는 없으며 신체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후 병원을 찾으면 이미 병이 많이 진전되어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반드시 필요하다. 정확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검사종목, 비싼 건강검진비용 등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얼마나 적합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인지가 중요하다. 개인의 유전력 및 가족력, 성별, 연령, 직업, 평소 건강상태, 식생활습관, 복용약 등을 모두 고려하여,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10대 청소년기, 가장 큰 위험요소는 비만

10대는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기로 아이들의 가장 큰 건강위험요소 중 하나는 바로 비만이다. 정기적으로 신체계측 및 빈혈, 당뇨, 고지혈증, 간기능, 간염 등 일반적인 건강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B형간염 접종 등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예방접종을 받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20대~30대는 건강에 대해 과신하기 쉬운 연령인 동시에 사회생활이 왕성해지면서 불규칙한 식생

활과 운동부족으로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술·담배·스트레스 등에 노출되면서 몸이 혹사당하는 시기다. 1년 혹은 2년마다 정기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검사와 유방암검사를 받도록 한다. 만약 결혼을 앞둔 여성이라면 반드시 풍진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다.

40~60대는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지만 바쁜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그냥 넘기기 쉬운 연령층으로 과로사나 심장병, 각종 암, 중풍, 간, 폐질환 등이 주요 사망 원인인 시기다. 1~2년마다 위암검사를 실시하고 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해 대변검사를 하며, 50세 이후에는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검사와 유방암검사를 실시하며 폐경기 전후 골다공증 예방 및 조기치료를 위한 골밀도 검사를 받도록 한다.

한국은 의료서비스의 선진국으로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요즘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한국의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지난 3월에 재인도네시아한인회와 건강검진협약을 맺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놓았다. 최고의 의료진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만나절이면 모든 검진이 끝나므로 잠시 고국에 다니러 간 해외동포들에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미처 예약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가까운 지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에게는 최대한의 서비스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건강검진 신청절차 상세 안내

- 한인뉴스 5월호 참조

(한인회홈페이지, 한인뉴스에서 내려 볼 수 있음)

전국 15개소 건강검진센터 안내

<홈페이지 : www.kahp.or.kr>



김성월 / 수필가, 방송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별과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갈리만딴 섬 - 다약족(가일) 마지막편

마지막으로 민박하는 날이다. 인도네시아 집들은 바닥이 거의가 타일로 되어 있다. 내가 사는 집도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지만 갈리만딴섬 오지의 집들은 모두 나무로 지어져 있었다. 예전에는 지상 6미터 높이로 지었는데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은 평균 2미터라고 했다. 강변이 아닌데도 집을 그렇게 지은 이유를 민박집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우기 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집이 높기 때문에 마루로 올라가려면 발자국이 꽤인 널빤지를 던고 올라가야 한다.



민박했던 마을의 사람들 모습

사다리에 발 올리려는데 운동화는 흙으로 더덕더덕 엉겨 붙어 진흙투성이였다. 운동화는 분명히 하얀색이었는데 진흙으로 두껍게 도배되어 하얀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신발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니 내 얼굴은 썬크림으로 얼마나 얼룩졌는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저절로 보였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녘까지 도심지로 다녔으면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았을 터인데 산이나 숲속에는 비춰볼 거울도 그럴 여유도 없었다. 뜨거운 햇

살에 송송 맺힌 땀방울들이 흘러내리면 숲속의 솔바람이 얼른 다가와 후후 불어서 말려주었다. 팔뚝을 만지자 거미줄을 만졌던 손처럼 끈적거렸다.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내기 위해 땅바닥에 앉았다. 흙이 떨어져나갈 때 다약(가일)족들과 함께 걸어 다녔던 흔적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샤워하러 욕실로 갔다. 민박집 욕실은 헛간이나 다름없었다. 물이 담긴 커다란 통들이 여러 개 놓여 있고 변기도 있었다. 통 속의 담긴 물은 강물이 아닌 빗물처럼 맑은 물이었다. 강물에서 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몰아쉬었다. 변기 바로 뒤에는 집안의 전등불을 밝혀주는 발전기가 있었고 오래된 모터가 매연까지 뿜으며 혁혁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시끄러운 저 모터만 없다면 나는 더 즐겁게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대한 꿈(?)과 화려한 생활을 꿈꾸며 지금도 그 꿈을 키우며 살아간다. 그런데 풍광 좋은 곳에서 온천수로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헛간에서 샤워할 수 있는 물 몇 바가지에 이렇게 만족해하다니, 아니 행복해하다니 그것도 뻑뻑거리는 모터소리 들어가면서 말이다.



다약족 사진

이런 내가 초라해지고 시시해지는 것 같다며 혼잣말로 투덜거렸더니 모터가 들었는지 그때 ‘끼이익’ 하며 돌아가던 모터가 멈췄다. 눈을 떴다. 눈을 떠도 감은 것처럼 사방이 캄캄했다. 더듬거리면서 바가지로 물을 머리에 끼얹었더니 삼푸 거품이 주르르 흘러 눈으로 들어갔다. '아휴~ 투덜거리지나 말 걸' 모터를 미워하지 않을 테니 제발 돌아가길 기도했더니 이번에도 모터가 들었는지 '썩~'하며 돌아가고 불이 켜졌다. 정말 감사했다. 비누칠한 후 바가지로 물을 끼얹었다. 내 전신에서 삶의 찌름과 오만함이 거품 되어 마룻바닥 아래로 흘러갔다. 바닥 사이로 낙수소리가 소나기 빗소리 같이 시원스럽게 들려왔다.

하나님이 쉬라고 주신 밤에 무언가(?)를 한답시고 야행성이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문명이 단절되다시피 한 이 오지의 밤 나는 쉴 수밖에 없다. 일찍이 잠자리에 드러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 역시 마구간 천장을 연상케 했다. 대나무로 된 서까래에 거미줄이 군데군데 쳐져 있고 거미줄에 걸린 바퀴벌레가 금방이라도 내 얼굴에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눈을 감으니 천국이 따로 없는 듯 평화로웠다. 이렇듯 세상일도 가끔 눈을 감아 줄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게 해 주는 기회였다.



동굴에서 밖으로 내다 본 모양

낮에 동굴 갔던 일이 생각났다. 다약(가일)족들은 조상의 시신을 다른 부족이 훔쳐갈까 동굴 속에 숨겨 두었던 것이다. 전형적인 열대우림, 길이 없는 산등성이 나무숲을 헤치며 가자니 험난했다. 나뭇가지에 매달리기도 하고 바위를 안고 발을 옮기기도 했다. 비탈진 곳, 낙엽은 층층이 쌓여 있었다. 낙엽을 밟아도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그 낙엽 밟은 소리는 안 들리고 미끄러져 엉덩방아 쪼는 소리만 들렸다. 이렇게 험한 곳에 운동화도 미끄러지는데 다약(가일)족들은 맨발로 잘도 올라갔다. 동굴에 다다랐다. 해골이 여기저기 있었고

카메라불빛이 비칠 때마다 죄지은 듯 박쥐들이 거꾸로 매달린 채 숨죽이고 있었다.

집이 흔들렸다. 나는 '지진 났다' 고 옆에 누운 민박집 딸에게 말했더니 나무 위에 지은 집이라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흔들거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며칠 동안 나는 왜 느끼지 못했을까. 하긴 날마다 파김치가 되어 잠들었으니 집이 흔들려도 아니 누가 업어 가도 몰랐던 것이다.



오리 잡는 장면

민박집 딸은 서른이 넘었는데 이혼하여 친정집에서 기거했다. 그 집에는 딸 둘 아들이 있었는데 두 딸 모두 이혼하여 친정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큰 딸과 함께 방을 사용하였는데 이혼한 이유를 듣는 기회가 있었다. 한 마을 이웃집이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고 부모가 정해진 결혼이라 했다. 초등졸업자와 대학졸업자가 만나 살다보니 남편의 지식수준이 낮고 무식이 충만하여 의견차이로 속 터지는 건 참고 살겠는데 가끔 손찌검도 하더라. 결국 이혼하여 남편의 집은 맞은 편 집에서 세 번째 옆집이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기에 다 안다고 판단하고 결혼하여 살아보니 그게 안다고 믿었던 것이 빙산의 일각이었더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다. 아침에 민박집주인은 오리 두 마리를 잡고 있었다. 무슨 날이나고 물었더니 예로부터 자신들의 집에 묵은 손님이 떠나는 날은 꼭 피 흘리는 가축을 잡아서 대접해야 떠나는 손님에게도 보내는 주인에게도 평안이 깃든다고 믿는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풍습이라고 했다. 사흘 동안 흰밥과 고추양념만 먹다가 오리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으니 눈물이 어려 고기가 잘 안 보인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이 전해왔다. 그동안 골병들도록 고생한 것들이 이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내 삶의 블랙박스에 기록이 되는구나. 나는 또 이렇게 오지로 돌아다니는 일에 중독이 되고 살아가고 있구나! ■■■



장 하 長夏

박 관 구 / 자카르타 안디옥교회 목사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하여 갖춰야 할 덕성으로 여러 가지가 말해져 왔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인륜대의로서 주로 삼강오륜을 말했고, 중국에서는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강조했다. 불교에서는 무아와 윤회사상에 기초한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인 사랑을 말한다. 이 중에서 우리 인생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덕성은 무엇일까? 자연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다. 여러 일들이 형통하고 풍족하여 근심 걱정이 없는 낮과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가난과 불행,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밤과 같은 때도 있다는 말이다. 인생에는 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솔로몬! 그는 밤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종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필요한 법이다. 나무는 흔들려짐으로 뿌리가 깊어진다. 풍상을 견디지 않은 나무에는 나이트가 없다. 역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람은 역경을 통하여 깨달음과 진보를 이룬다. 고난이 아니고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진리가 있다. (시119:71) 또한 사람은 때때로 역경을 통해서만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발휘하기도 한다.

영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존 밀턴은 소경이라는 역경 속에서 대작 “실락원”을 저술했다. 존 번연은 모함을 받아 1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에 불후의 명작 “천로역정”을 집필했다. 빅톨 위고는 저지 섬으로 추방되어 20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명작 “레미제라블”을 완성했다. 조엘 K 롤랑은 아기에게 우유하나 사줄 돈이 없어 물병을 입에 물리고 울어야 했던 극한의 가난 속에서 공전의 히트작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 내려갔다.

이와 같이 역경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생이며,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한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위축되고 비틀거리며 쓰러

지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역경은 그들의 비전이나 사명, 열정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역경을 발판으로 도약하여 큰 것을 이루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경에 막혀 잠재력과 가능성을 탕진하고 좌절 한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가? 바로 인내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는 근본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인내의 차이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능력이나 기량도 그 이전의 인내에 의해 축적되기 때문이다.

인내를 말하는 Patience는 라틴어 Patior에서 왔다. 그 의미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다. 인내를 뜻하는 헬라어 마크로 튜미아는 긴, 느린의 뜻인 마크로스과 노여움을 뜻하는 튜미아의 합성어이다. 즉 화 내는데 느린 것이 인내이며, 인내란 화를 늦추는 능력이란 뜻이다. ‘유인필승, 무인필패(有忍必勝, 無忍必敗)’란 말이 있다. 인내만 있으면 반드시 이기며, 인내 없이는 반드시 패한다는 뜻이다. 명심보감에는 ‘인일시지분, 면백일지우(忍一時之忿, 免百日之憂)’라는 말이 있다. 한 때의 분을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공자는 “모든 행위의 근본에 참는 것 외에 으뜸가는 것은 없다”라고 말한다.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16:32)”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대표적 덕성인 사랑의 첫째가는 특성도 오래 참는 것 곧 인내이다(고전13:4).

세상에 인내 없이 성취 되어 지는 일은 없다. 위대한 업적은 힘이 아니라 인내에 의해 성취된다(새뮤얼 존슨). 인간과 인생에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의 90%는 인내의 부족에 기인한다. 천재란 보다 인내하는 사람에 다름 아니다(벤자민 프랭크린). 모든 부족과 불운은 인내로서 극복 되어 진다(베르질리우스). 인내 없이는 어떤 인간도 성숙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내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인내야말로 제자도의 근본인 것이다.



그런데 인내의 첫째 문제는 ‘무엇을 인내하는가’이다. 성경은 모든 것을 참으라고 했다. 그 무엇이나 인내하는 사람은 당해 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가려가면서, 쉬운 것만 인내하는 데 있다. 둘째는 어떻게 참는가의 문제이다. 성경은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라(골1:11)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불평과 원망 속에 억지로 참아낸다. 그런 참음은 때로 아니 참음만 못할 때가 있다. 셋째는 얼마나 오래 참는가의 문제이다.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했다. “오~래 참고”의 ‘오’는 5분을 끌어 발음해야 한다는 어느 목사의 말은 유머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은 정말 “오래” 이시다. 그러나 우리의 참음은 충분히 “오래” 이지 못할다. 한 때이고 일시적일 뿐이다. 여기에 우리 인내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오래 참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교훈이 있다.

1년에는 춘,하,추,동 4계절이 있다. 봄은 혹독한 추위 속에 죽은 듯 했던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생(生)의 계절이다. 이에 반해 여름은 봄에 기운을 축적한 만물이 본격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成)의 계절이다. 가을은 그렇게 성장한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는 수(收)의 계절이며, 겨울은 수확한 모든 것을 저장하는 장(藏)의 계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의학의 계절구분에는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 장하(長夏)의 계절이 그것이다. 장하(長夏)는 여름과 가을 사이의 계절로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의 시기를 말 한다. 장하(長夏)는 오곡백과, 약재에 가장 중요한 계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속이 익어가는 화(化)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외형이나 크기는 그대로지만 속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시기이다. 오곡이나 백과는 반드시 이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 이 시기 이전에 탄 열매는 풋열매에 불과하며 맛이나 약효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스런 시기이다. 여름 내내 비바람과 강한 햇볕에 시달려 탈진상태에 이른 후에 다시 견뎌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나 장하(長夏)의 기간은 가장 고통스런 시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하(長夏)의 기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 위대한 인간이 되며, 그러한 인생에만 농익은 그윽한 향기가 감돌게 된다. 그 속에는 그만큼의 크고 깊은 영혼의 아름다움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8월 하순! 장하(長夏)의 계절이다. 만물이 고통스럽지만 속으로 농익는 화(化)의 계절인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장하(長夏)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장시간의 고통을 헤쳐 나오느라 지쳐버린 당신! 그러나 다시 일어나 또 한 시기를 견뎌내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하(長夏)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 성공과 실패는 최후의 5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우리에게서 최후 5분의 인내를 포기해서 쌓인 실패가 많이 있다. 애벌레는 죽음과도 같은 최후의 큰 고통까지 견뎌내야만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견뎌내시라! 훗날 이 시기에 대해서 웃으며 말 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당신에게 “애벌레에서 나비로” 승화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간의 참음이 아깝지 않은가? 조금만 더 참아내시라! 하나님이 당신의 “최후 5분의 인내”, 장하(長夏)의 인내를 도우셔서 마침내 “나비”로 승화하게 되는 날을 맞게 하 시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식물에게 있어 이 장하(長夏)는 가장 고통

신 출입국관리법 · 3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1. 형사 처벌

1.1. 고의로 이민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자는 징역 최장 1년 및/혹은 벌금 최고 1억 Rp.에 처한다.

1.2. 이민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송기(비행기, 배 혹은 자동차)가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수송기 책임자(기장, 선장 혹은 기사)를 징역 최장 1년 및/혹은 벌금 최고 1억 Rp.에 처한다.

1.3. 이민국 심사대가 없는 장소에 입국 승객을 내려놓거나 출국 승객을 태우는 수송기 책임자는 징역 최장 2년 및/혹은 벌금 최고 2억 Rp.에 처한다.

1.4. 불법 입국자를 태우고 입국 후 적발되어 불법 입국자 출국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송기의 입국 혹은 출국을 보고하지 않거나, 승객 및 승무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해외로부터 승객을 태우고 온다는 깃발/신호를 하지 않거나, 이민국 검사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오거나 내리는 것을 금하지 않거나, 태우고 온 불법 입국자를 최단 다음 수송기로 출국시키지 않거나, 불법 입국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송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수송기 책임자는 징역 최장 1년 및/혹은 벌금 최고 1억 Rp.에 처한다.

1.5.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써 이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본인 및 가족의 법적 신분, 국적, 직업 혹은 주소를 이민국에 제공하지 않거나 그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여행증명서(여권) 혹은 거주허가서를 제시 혹은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금고 최장 3개월 혹은 벌금 최고 2천 5백만 Rp.에 처한다.

1.6.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개인 집 주인 혹은 숙박업소 주인으로써 이민국에서 요구 시 해당 국민의 신상 자료 제공을 거부한 자는 금고 최장 3개월 혹은 벌금 최고 2천 5백만 Rp.에 처한다.

* 한국으로부터 부모형제, 인척 혹은 친구가 와서 집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해당.

1.7.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스폰서(* 회사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스폰서임)로써 해당 외국인의 인적 사항, 출입국법상의 체류허가 및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그 변경 사항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는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5억 Rp.에 처한다.

1.8. 위조 여권 혹은 불법 비자로 입국했거나, 체류하고 있거나, 위조 여권 혹은 불법 비자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조 여권 혹은 불법 비자로 입국했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5억 Rp.에 처한다.

1.9. 인신 밀수자, 인신 밀수 명령자, 인신 밀수 미수자 혹은 인신 밀수 명령 미수자는 징역 최단 5년 최장 15년 및 벌금 최소 5억 Rp. 최고 15억 Rp.에 처한다.

1.10. 비자 혹은 체류허가를 위조한 자나, 위조된 비자 혹은 체류허가를 고의로 이용한 외국인은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5억 Rp.에 처한다.

1.11. 체류허가를 악용하거나 체류허가와 다른 활동을 한 외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체류허가의 악용을 명하거나 체류허가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5억 Rp.에 처한다.

* 도착 비자 혹은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을 하

거나, 기한부 거주허가서(KITAS) 및 IMTA(외국인 고용허가서)에 기재된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취업하거나,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할지라도 다른 직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1.12. 비자 혹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비자 혹은 체류허가서를 고의로 이용한 외국인은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5억 Rp.에 처한다.

1.13.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보호하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생계를 돕거나, 일자리를 준 자는 징역 최장 2년 및/혹은 벌금 최고 2억 Rp.에 처하며, 체류허가가 만료된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보호하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생계를 돕거나, 일자리를 준 자는 금고 최장 3개월 혹은 벌금 최고 2천 5백만 Rp.에 처한다.

1.14. 외국인의 출입을 금하는 특정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외국인은 징역 최장 3년 및/혹은 벌금 3억 Rp.에 처한다.

1.15. 고의로 위조 인도네시아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거나 출국한 자, 실효한 인도네시아 여권을 이용한 자, 인도네시아 여권 발급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자, 유효한 같은 종류의 인도네시아 여권을 2개 이상 보유하거나 이용한 자, 위조 인도네시아 여권을 보유한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5억 Rp.에 처한다.

1.16. 고의로 본인 혹은 타인의 출입국 서류 전부 혹은 부분을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분실시킨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5억 Rp.에 처한다.

1.17. 고의 혹은 불법으로 타인의 출입국 서류를 장악한 자는 징역 최장 2년 및/혹은 벌금 최고 2억 Rp.에 처한다.

1.18. 고의, 불법, 매뉴얼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타인의 출입국 자료를 보유하거나, 보관하거나,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변경하거나, 복사하거나, 사용한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5억

Rp.에 처한다.

1.19. 가짜 여권을 발급해준 이민국 직원 혹은 공무원은 징역 최장 7년에 처한다.

1.20. 이민국 직원 혹은 공무원이 다음 중 한 사항에 해당된 자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

1.20.1. 스폰서가 해당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의 활동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외국인의 인적 사항, 출입국법상의 신분 및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데도 방치하거나, 체류허가가 종료된 외국인을 출국시키지 않거나, 강제출국 결정이 난 자를 강제 출국시키지 않는 자

1.20.2. 여권 및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방치한 자

1.20.3.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방치한 자

1.20.4. 인신 밀수 및 인신 밀수 미수를 방치한 자

1.20.5. 비자 혹은 체류 허가를 위조하는 자 및 위조 비자 혹은 위조 체류허가로 입출국하는 자를 방치한 자

1.20.6. 체류허가를 악용하거나 체류허가와 다른 활동을 한 외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체류허가의 악용을 명하거나 체류허가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자를 방치한 자

1.20.7. 비자 혹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비자 혹은 체류허가서를 고의로 이용한 외국인을 방치한 자

1.20.8. 고의로 위조 인도네시아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하거나 출국한 자, 실효한 인도네시아 여권을 이용한 자, 인도네시아 여권 발급 신청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자, 유효한 같은 종류의 인도네시아 여권을 2개 이상 보유하거나 이용한 자, 위조 인도네시아 여권을 보유한 자를 방치한 자

1.20.9. 인도네시아 여권 양식을 위조, 보유, 보관 혹은 매매한 자 혹은 여권 등 이민국 서류에 찍는 직인 및 다른 도구를 제조, 보유, 보관 혹은 매매한 자를 방치한 자

1.20.10. 고의로 본인 혹은 타인의 출입국 서류 전부 혹은 부분을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분실시킨 자를 방치한 자

1.20.11. 고의, 불법, 매뉴얼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타인의 출입국 자료를 보유하거나, 보관하거나,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변경하거나, 복사하거나, 사용한 자를 방치한 자

1.20.12. 가짜 여권을 발급해준 이민국 직원 혹은 공무원을 방치한 자

1.20.13. 출국 금지자 명단, 입국 금지자 명단, 외국인 활동 감독 사항 등 이민국의 비밀 사항을 누출시킨 자

1.20.14. 이민국 구치소에서 도주한 외국인을 방치한 자

1.20.15. 체류허가 혹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얻기 위하여 위장 결혼을 한 자를 방치한 자

1.21. 이민국 구치소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하거나, 사용하거나 혹은. 배분한 자는 징역 최장 3년에 처하며, 이민국 구치소 혹은 구치실에서 도주한 자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

1.22. 체류허가 혹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얻기 위하여 위장 결혼을 한 자는 징역 최장 5년 및 벌금 최고 5년에 처한다.

1.23. 다음에 열거한 범죄를 회사가 저지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과 회사를 한꺼번에 형사 처벌한다.

1.23.1. 이민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송기(비행기, 배 혹은 자동차)가 입국하거나 출국하거나, 이민국 심사대가 없는 장소에 입국 승객을 내려놓거나 출국 승객을 태운 행위

1.23.2.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이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본인 및 가족의 법적 신분, 국적, 직업 혹은 주소를 이민국에 제공하지 않거나 그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여행증명서(여권) 혹은 거주허가서를 제시 혹은 제공을 거부한 행위

1.23.3.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개인 집 주인 혹은 숙박업소 주인으로써 이민국에서 요구 시 해당 외국인의 신상 자료 제공을 거부한 행위

1.23.4. 스폰서가 해당 외국인의 인적 사항, 출입국 법상의 체류 허가 및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그 변경 사항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행위

1.23.5. 인신 밀수 행위

1.23.6.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보호하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생계를 돕거나, 일자리를 주거나, 체류허가가 만료된 외국인을 고의로 숨겨주거나, 보호하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생계를 돕거나, 일자리를 준 행위

1.23.7. 인도네시아 여권 양식을 위조, 보유, 보관 혹은 매매한 자 혹은 여권 등 이민국 서류에 찍는 직인 및 다른 도구를 제조, 보유, 보관 혹은 매매한 행위

1.23.8. 고의로 본인 혹은 타인의 출입국 서류 전부 혹은 부분을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줄이거나, 분실시킨 행위

1.23.9. 회사에 대한 벌금형은 형량의 3배에 처한다(* 법정 벌금액이 최고 5억 Rp.인 경우에 범법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3배인 15억 Rp.의 벌금에 처한다).

2. 신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대비

2.1. 인도네시아의 신 출입국 관리법을 읽으면 마치 형법전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외국인에 대한 이민국의 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고, 출입국 관리법 범법자에 대한 형사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형량이 강화되었으며, 범법자를 목인

하는 이민국 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형량이 무거워졌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 출입국관리법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국 직원은 하더라도 외국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출입국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연행이 가능하며, 출입국 관리법 범법 시 이민국 구치소에 가둘 수 있으며, 강제 출국시까지 최장 10년을 구치해도 적법하며, 강제출국 프로세스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시설이 열악한 이민국 구치소에서 장시간 심신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체류허가(KITAS)와 고용허가(IMTA)에 기재된 회사 혹은 직책과 다른 회사 혹은 직책에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 처벌이 징역 최장 5년+벌금 최고 5억 Rp.이며 회사의 범죄로 판명되면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최장 5년과 추가로 회사에게는 벌금 최고 15억 Rp.까지

떨어지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당할 수도 있다.

2.2. 신 출입국에 비추어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인허가 서류가 미비한 회사는 조속한 구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차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제 사주는 KITAS와 IMTA에 회사의 직원으로 하지 말고 정관에 이사로 등재하여 형식 요건을 갖추어 바람직하다(* 내자투자회사 혹은 일반회사의 대표이사의 자리는 외국인에게 불허하나 이사의 자리는 허용한다).

2.3. 출입국 관련 서류 원본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거주지에서는 사본을 지참하고 다니고, 거주 지역을 벗어나 여행을 할 때에는 여권 및 KITAS 원본을 지참한다.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방법 및 재외투표용지 발송 방법 개정내용 안내

■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여권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자서식)를 작성하여 재외선거인들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기표식)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기계장치 이용 투표용지 작성 시 교부는 중앙선거관위의 사전 의결(결정)이 필요함 	



HP.0816-181-3615, hatibaru@naver.com

이병수와 함께하는 보험교실 - 자동차보험 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례들을 짚어보면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사례들

1.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내 차 앞범퍼와 본넷(Bonnet - 정식 발음은 '보닛' 이라고 해야...)이 왕창 부서졌다.
2. 차만 부서졌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운전 중이던 나도 관성의 법칙에 충실하게 앞유리에 머리를 들이받고 이마가 깨졌다.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목에도 이상이 느껴진다.
3. 하필이면 재수 없게 그 때 조수석에 동승해서 둔 안들이고 집에 가려던 친구녀석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졸고 있다가 코가 깨졌다.
4. 들이받힌 앞 차에서 운전자가 내려와 '내 차 물어내라' 고함을 지른다. 더군다나 고함을 지른 뒤 '어이구!' 하면서 목을 만진다. 이를 어찌할꼬...
5. 정신을 차리고 나가보니 내 차 뒤에도 다른 차가 키스를 하고 있다. 떼어봐야 알겠지만 뒷범퍼를 새것으로 교체해야할 듯한데... 나처럼 졸음운전한 녀석이 또 있었구면... 나도 저 녀석한테 '내 차 물어내라' 고 고함을 질러야겠다.
6. 내 차가 앞에 서있던 차를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앞차가 밀려나서 그 앞에 있던 차를 살짝 들이받아 그 앞차 범퍼가 찌그러졌다네?
7. 내 차는 엔진부위까지 맛이 가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정비소까지 견인을 해야 하겠는데 비싼 견인료는 어떡하지?

8. 한 달이나 걸려서 겨우 내 차 수리를 마치고 정비소에서 인수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역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상습수침지역'을 지나서 집에 가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계속 쏟아진 비 때문에 도로 옆의 하수구가 역류해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겼다. 물이 타이어높이 이상으로 차오르더니 급기야 시동이 꺼져버렸다. 다시 시동이 걸리지도 않는다. 몇 시간 후에 물이 줄어든 다음 다시 한 달 전처럼 견인되어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아야 했다.

위의 사고사례들이 모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별로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지요.

1. '자차' 사고라고 하지요. 졸음운전이건, 정신을 딴 데 잠시 팔았건 간에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망가진 내 차는 당연히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요. 단,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 지정정비소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승용/승합차량의 경우 매 사고당 20만루피아의 '자기부담금' 만 정비소에 지급하면 됩니다.
- 2 & 3. '자손' 사고라고 하지요. 운전자와 동승자는 보험증서상에 명시된 'Personal Accident'와 'Medical Expense'의 금액한도(일반적으로 기본 한도가 각각 일인당 1천만루피아와 5백만루피아) 내에서 치료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빙이 가능한 서류들(의료비 영수증 원본 등)이 첨부되어야 하겠지요. 의료비가 비싼 인도네시아에서 기본한도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일인당 한도 (최고 5천만루피아까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4. ‘제 3자 배상책임’ (Third Party Liability)에 해당됩니다. 들이받힌 앞차는 ‘대물’에 해당되고 목부위를 다친 앞차 운전자는 ‘대인’에 해당되는데, 인도네시아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과 ‘대물’ 각각의 한도 구분이 없이 총액기준으로 한도를 책정하고 있지요. ‘자손’과 마찬가지로 제 3자 배상책임 한도액을 추가보험료 조건부로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억루피아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3자 배상책임 부문에서 주의하실 점은, 사고현장에서 타협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보험사 지정정비소에서 수리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 치료비 또한 입증자료(의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가 보험사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5. 뒷차에 들이받힌 내차 뒷범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라면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뒷차 운전자에게 ‘내 범퍼 물어내!’라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요. 가해자가 인도네시아인일 경우 내 차를 수리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아마도 거꾸로 자기 차를 물어내라고 큰소리칠 개연성이 아주 크겠지요. 그래서 좋게 타일러서 돌려보내고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지요.

6. 제 4항과 마찬가지로 ‘제 3자 배상책임’에 일괄적으로 해당됩니다.

7. 견인비용도 수리비용에 포함되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염려마세요!

8. 소위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소정의 추가보험료 조건부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기본담보로 포함되어 판매하는 상품도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 서울의 대흥수 사건을 계기로 풍수재위험이 종합보험의 기본담보로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사례들

1. 무면허인 아들녀석이 아빠 몰래 운전하다가 사고를 쳤다.

2. 얼큰하게 한 잔하고 운전하는 객기를 부리다 멀쩡한 가로수가 드러눕는 바람에 차가 부서졌다.

3. 날아가는 새들이 버릇없이 내 차 위에 용변을 본 것을 모르고 방치해 두었더니 차체가 부식이 되어서 보기에 흉하다.

4. 주행 중에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연기가 새어나오더니 급기야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서버렸다.(인도네시아 말로 ‘Mogok’이라고 하지요?)

5. 현장에서 차를 수리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지나가는 견인차를 불러서 ‘Mogok’이 된 차를 정비소까지 끌고 갔다. 견인료가 상당히 비싸던데...

6. 도로상에서 다른 차와 충돌사고가 나서 운전자끼리 옥신각신 시비가 붙은 와중에 내 차에 싣고 다니던 골프백이 없어졌다.

7. 지하 주차장에 ‘Parking’해두었던 차에 원인미상의 불이 나서 차가 전소되었다.

8. 주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은 고용 운전기사가 엔진부위에 밀가루를 잔뜩 뿌려 고장을 내고 도망갔다.

알쏭달쏭... 위의 사례들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물론 안 되니까 사례로 열거했겠지요? 그러면 왜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사례별로 알아볼까요?

1. 무면허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라 함은 상식적으로 ‘운전할 자격이 없는 자’이겠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돈을 주고 면허증을 살 수 있으니 상황이 좀 달라지겠네요. 돈을 주고 산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쳤을 경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이기는 하더라도 ‘운전할 자격이 있는 자’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거꾸로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을 쓰기가 싫

어서 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발급받기가 귀찮아서 그냥 무면허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또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답니다. 주의하세요!

2.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벌이 가해지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면책’이어야 하겠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군요. 교통사고로 경찰에 적발이 되어도 음주여부는 거의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 당시 적당히 넘어갔다가 보험사에 사고통보를 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이 인도네시아 자동차보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험만 믿고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지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목숨을 무시하는 행위이니 삼가야겠지요.

3. 새들의 용변으로 인한 차체 부식은 자동차의 사용 또는 주행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의 보상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자연마모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야외에 장기간 주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덮개를 사용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4. ‘Mogok’은 전형적인 고장의 유형입니다. ‘사고’가 아니지요. 차량의 자체결함, 관리부실, 자연마모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고장’이고 자동차의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과는 거리가 멀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는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본인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한답니다.

5. 고장으로 멈춰버린 차를 정비소까지 견인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견인과는 다르지요. 그런데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서는 서비스의 차원에서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네요. 찾아보세요!

6. 차량이 출고되는 시점에서 차량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물품은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고 이후에 별도로 부착한 자동차용품들은 보험가입시 품목과 가격을 별도로 명시하고 당연히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골프백은 부착된 자동차용품이 아니지요. 가령 백미러(정식명칭은 리어미러)를 신호대기 중에 도둑님 또는 강도가 데어갖고 달아났다면? 백미러는 자동차의 기본 부착용품이므로 도난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7.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소행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외부에서 연소된 화재가 옮겨 붙어 차량이 소실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경우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자, 계약자의 가족 또는 계약자의 피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 운전기사로 인한 차량도난을 포함하여 운전기사가 고의로 일으킨 가해행위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기사가 차량 운행 중 고의로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이 경우는 운전기사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보상처리를 해주어야겠지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인도네시아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칠 수 있는 자동차관련 주요 사고사례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병수와 함께하는 보험교실’ 연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교실을 떠나서 더 유익하고 알찬 이야기거리와 함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1년간 저의 ‘보험교실’과 함께 해주신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병수와 함께 하는 보험교실’이 9월호에서 끝났습니다. 그동안 ‘보험교실’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신 이병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자 -

귀국 이사물품 통관안내 및 운송 피해사례 전파

이사자와 이사물품 정의

☞ 이사자

- ☞ 우리나라로 주거이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 ☞ 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 재외영주권자 : 영주귀국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 이사물품

- ☞ 이사자 본인이 입국시 휴대 또는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자 직업, 기간, 목적 등으로 보아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 타인물품(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파이프 오르간 등) 등

면세/과세 물품

☞ 면세대상 물품

- ☞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 동반가족이 해외 거주시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
- ☞ 이사물품 등 요건을 충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단기체류자가 반입한 국산자동차는 과세) 등

☞ 과세대상 물품

- ☞ 선박/항공기
- ☞ 보석, 진주 등과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이상)
- ☞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등

§ 과세대상 물품 중 자동차 세부내용

☞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

- ☞ 승용차(10인승이하), 이륜차(50cc이상)
- ☞ 전거주지에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자동차
-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 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 이사자 등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 국내 반입

☞ 이사물품 자동차 과세가격 및 세액결정

- ☞ 선적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기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을 기준(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 가격 제시시 제시가격 인정)
- 과세가격 : 동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 ☞ 총 세율은 2,000cc 초과시 과세가격의 34.24%, 2,000cc 이하시 과세가격의 26.52%

이사물품 운송관련 피해사례전파 및 주의사항

이사물품 운송과정에서 운송업체의 고의 부도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이사자가 운송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짐을 찾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 이사물품 운송업체를 선정할 경우, 신뢰도가 높고 신용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주시고, 운송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세부사항 및 정확한 규정을 안내받으시려면 관세청 홈페이지(해외 이사물품) 및 관세청 고객센터 원센터로 직접 확인바람

*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통관정보의 문>해외 이사화물” 활용

* 서울세관 홈페이지 :

www.customs.go.kr/seoul

* 관세청 고객센터

(국내 1577-8577, 국외 02-3438-5199)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 . KORIDO

드라마에서 퍼 올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망치는 못을 박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벼는 잠들지 못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과 高官의 딸이 결혼하고 내 아버지는 예고 없이 해고된다 어느 날 갑자기 새는 갓 낳은 제 새끼를 쪼아먹고 카바레에서 춤추던 有婦女들 얼굴 가린 채 줄줄이 끌려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들은 考試에 합격하거나 文壇에 데뷔하거나 美國으로 발령을 받는다 어느 날 갑자기 벽돌을 나르던 조랑말이 왼쪽 뒷다리를 빼고 과로한 운전수는 달리는 버스 핸들 앞에서 졸도한다

어느 날 갑자기 미루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선생은 생선이 되고 아이들은 발랑까지고 어떤 노래는 금지되고 어떤 사람은 수상해지고 고양이 새끼는 이빨을 드러낸다 어느 날 갑자기 꽃잎은 발톱으로 변하고 처녀는 養老院으로 가고 엽기 살인범은 불심 검문에서 체포되고 어느 날 갑자기 괘종시계는 멎고 내 아버지는 오른팔을 못 쓰고 수도꼭지는 헛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드름투성이 소년은 풀 먹인 군복을 입고 돌아오고 조울증의 사내는 종적을 감추고 어느 날 갑자기 일흔이 넘은 노파의 배에서 돌덩이 같은 胎兒가 꺼내지고 죽은 줄만 알았던 삼촌이 사할린에서 편지를 보내 온다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옆집 아이가 트럭에 깔리고 축대와 뚝에 금이 가고 月給이 오르고 바짓단이 뜰어지고 연꽃이 피고 갑자기, 한약방 주인은 國會議員이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장님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걷고 갑자기, ×이 서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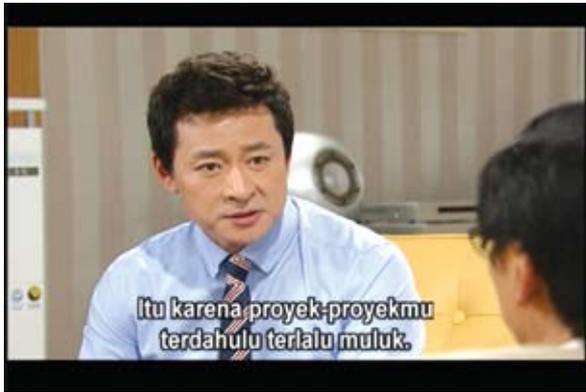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주민증을 잃고 주소와 생년월일을 까먹고 갑자기, 왜 사는지 모두지 알 수 없고

이성복의 시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의 일부분입니다. 연상기법의 명시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 시 그대로인 듯합니다. 혼란과 모순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장이 확률적으로 질 게 뻔한 전쟁을 벌여서 자리에서 물러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교육감은 외형적으로 뇌물공여가 분명해 보이는 사건을 이실직고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 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해 지는 것 없이... 긴 르바란 휴가 동안 왜 이슬람 사람들이 금식을 하게 되었을까...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겠지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 여자들 Para Wanita Sejati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또는 배우자로부터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용호는 회장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엔 아직 철이 덜 듯 중년입니다. 죽은 동생의 남편인 상준에게 매번 질투를 느끼며 아버지가 본인을 밀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모두 허황된 사업으로 실망만 안겨주고 이를 보지 못한 성준이 용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tu karena proyek-proyekmu terdahulu terlalu muluk.

그 전에는 무리한 사업 건만 말씀하셨으니까.

Muluk : tinggi, angkuh, berlebihan, sok (속어/~척 하는) 과 일맥상통하며 어마 어마한, 거들먹거리는, 거창한, 떠벌리는 이라는 뜻으로 이상이나 계획(cita-cita, rencana)이 현실에 맞지 않게 거창한 경우 부정적의미로 사용되며, 반의어로는 sederhana, mudah 단순한, 수수한, 용이한, 쉬운 이라는 뜻의 sederhana, mudah가 있습니다.

예) “Cita-citanya sangat muluk, tidak sesuai dengan ke mampuannya.”

능력에 맞지 않게 이상이 너무 거창하다.

“Rencananya terlalu muluk tidak sesuai dengan biaya yang tersedia.”

준비된 재정에 맞지 않게 계획만 거창하다.

Tip)))

tidaksesuaidengan(명사)

속어로 (명사)에 걸맞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Sok hebat! 잘난 척 하다. / Sok tahu! 아는 척 하다. Sok 은 ‘~을 ~인 척하다’ 라는 뜻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인 척하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매사에 빈틈없고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주미는 가족보다는 본인을 우선시 하며 이기적인 모습, 때론 차가운 가족들을 대합니다. 본인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일삼지만 주변 사람들은 일 처리 잘하고 똑똑한 주미를 합리적인 사람으로 오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 회사 체인을 하려고 하지만 부담스러워하면서 본인 자존심만 내세우는 주미, 세인을 붙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체인 하는 걸 받아들이고 도와줍니다. 이에 사장인 상준은 주미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Dia orang yang sangat rasional.

(홍 팀장)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Rasional : peryang, yang, dengan과 일맥상통하며 합리적인, 도리를 아는, 이성적인 이라는 뜻으로 판단이 현명한 사람을 뜻합니다. 반의어로는 불합리한, 불가능한(Tidak masuk akal, mustahil)이 있습니다.

“Kita harus bersikap rasional dalam menindak para koruptor yang merupakan penjahat tingkat tinggi.”

8.15 제66주년 광복절과 제63주년 건국절

유동열(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원)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1945년 해방된 지 6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매년 맞이하는 8.15이지만 정말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 ‘8.15’가 가지는 몇가지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첫째, 8월 15일은 소련 공산권과 북한 김일성집단 및 좌익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 수립한 날인 것이다. 8.15는 이렇게 뜻깊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8.15하면 ‘1945년 8월 15일 일체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으로만 기념해 왔다. 대한민국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우리는 망각하고 이를 기념해 오지도 않고 있다. 위정자들의 역사인식 부재와 망각으로 인해 해방과 광복만 기념하고, 정작 신생 대한민국의 탄생은 도외시하는 국가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건국회 등 자유민주진영에서 ‘8.15 건국절’ 제정을 정부에 청원해 왔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올해 90수를 맞이한 한 원로 정치인은 이를 놓고 “제나라 생일도 모르고 기념하지 않는 국가는 ‘상놈의 정권’이다”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컬럼의 제목에 63주년 건국절이라는 타이틀을 추가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1948년 건국 당시 세계 최하위의 빈국이었던 신생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2권의 국력을 지닌 중심국가중 한 국가로 우뚝 섰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가 경탄하는 신생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 성취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국초기부터 북한 및 좌익분자들의 준동에 시달려 왔으며,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남침전쟁을 겪었고 10만 여건을 상회하는 북한의 대남테러도발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인 G20 회원국으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룰 정도의 세계강국으로 등장하였다.

이의 동력은 북한 김일성집단과 좌익들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반공산주의 전선에서 목숨을 희생한 순국선열과 안보일꾼들, 열악한 근로환경 하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이 된 산업전사들, 자유민주주의를 확대시키기 위해 헌신한 자유민주화 운동가들(민주화를 도용한 좌익세력들과 차별화하기 위한 용어임) 및 각 영역에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온 이름없는 자유시민들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오늘날 발전된 대한민국 앞에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 건국이후 ‘호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해 온 광복 66주년과 건국 63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북한 김정일집단과 국내 중북좌파세력들의 끊임없는 ‘대한민국 허물기 공작’이다. 특히 적화혁명의 전단계인 ‘대한민국 허물기공작’을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진보운동, 애국운동이라고 미화하며 이를 비호,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들과 중북좌파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시민 행세를 하며 아직도 발호하고 있다는 것은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편향으로 해석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며 북한 김씨집단(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며 북한정권에 한반도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여기에 일부 해외동포들도 부화뇌동하고 있어 우려된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전선적 구호를 내세워, 우리국민과 해외동포를 분열시키고 친북화시키기 위해 갖은 위해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어디 벤치마킹할 집단이 없어 2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억압당하고 있는 수령유일 폭압체제인 북한 김씨집단을 따르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하다. 우리는 북한 및 중북좌파세력의 대한민국 허물기 공작을 단호히 배제하고 우리사회의 악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국내외 한민족역량을 집대화하여 화합하며 선진일류국가를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함께 해요!



행사를 알리고 싶은 분은

한인뉴스편집실 haninnewsinni@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언론·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안내

- 접수기간 : 2011년 10월 17일(월)~10월 31일(월) 제출분에 한해 유효
- 접수방법 :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구체적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 *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 : www.harmonykorea.go.kr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사례 공모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한국기업의 CSR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자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CSR 사례공모전을 개최하오니 한국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주 최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응모자격 :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기업 (지상사, 금융기관, 교민기업 등)
- 제출기간 : 2011. 9.10-9.24 (15일간)
- 문 의 : 김도형 서기관 (2992-2500, EXT 120) // 허수연 주무관 (2992-2500, EXT 219)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열린강좌 - 한방과 양방의 조화-

<제13회 > 총론 및 우울증 이겨내기
일시 : 9월 17일(토) 10:00 - 12:00

<제14회> 폐질환 및 인체의 신비
일시 : 9월 24일(토) 10:00 - 12:00

- 강 사 : 이동균 (정형외과 전문의, 대체 의학자, 한방대학 침구학 및 해부학 교수)
- 장 소 :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층, 306호
JL. Taman Margasatwa, no.3, BUS WAY SMK 57 Ragunan, Jaksel.
- 연락처 : (021) 7883 9597 / 남기인 0811-807-196

마라톤동호회장 선임 및 모집 안내

- 일 시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 회 비 : 없음
- 전임회장 : 최병우 0811-956-227

새로 선출된 빅동환 신임회장이 동호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고국에 가시거든 최고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재인니한인회와 건강검진 협약, 한국건강검진협회 <홈페이지 : www.kahp.or.kr>

광고문의 521-2515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021 527 2612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69 124
버카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61 453 8669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보고르한인회	7782 886
빨렘방한인회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8078607

●교민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갈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120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84 6674
주님의교회	831 3843
찌까람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가수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광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광고문의
521-2515

독자들이
오래 소장하고 싶어 하는
<한인뉴스>
높은 광고효과와
후원의 기쁨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	----------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중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항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생활정보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아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세노파티)	5289	7044
가효(골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청(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x 자 자 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가루다오리엔트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유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	-----	----------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KEMBAR REJEKI	527	2245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동서증권	526	1326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팅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뽀짜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건설팅	5290	0040
우리건설팅	7918	4239
건설팅 21	799	6182
퓨릭건설팅	5596	3213
한생건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하숙집

쉼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집	1757	5525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722	0686
리앤리	725	5008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중로학원	7279	1020
도마도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

(회장 한상재)	0811	188 612
미술협회(인치혁)	0813	1514 9978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김영희)	0815	181 3102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 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문화연구원(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엄종한)	0811	177 503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발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등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등렌트카	0821 1616 3300
반등한인부동산	0858 6011 0777
반등컴퓨터 A/S	0821 1616 3300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한인뉴스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The 92nd NATIONAL SPORTS FESTIVAL

처녀 출전하는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응원해 주세요.

모든 선수들이 일등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2011년 10월 6일 ~ 10월 12일(7일간), 경기도 20개 시.군

- 기 간 : 9월 1일부터 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 참여방법 : 체육회 홈페이지(www.ksai.or.kr) "응원 메시지" 게시판에 응원가, 동영상, 사진, 그림, 구호, 응원 메시지, 축하 사연등을 보내주세요.
- 발 표 : 10월 3일 "응원 메시지" 게시판에 공지.
- 추 첨 : 게시글 추천수와 선수단에서 추천.

"www.ksai.or.kr 접속하신 후 응원 메시지를 클릭하세요."

추첨에 채택되신 분에게는 선수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체전 선수단 가방 (5명), 튜리닝 (3명), 땀복 (3명)

출전선수

*이름은 가나다 순서입니다.

- * 축구 남자 일반부 : 강성주 고광희 고창환 권진열 김동현 김유식 김종덕 남일성 박준용 서영석 송영민 오혁진 이광희 정광호 정기태 조영훈 조원택 주성진
- * 테니스 남자 일반부 : 김철수 마승욱 현상범
- * 테니스 여자 일반부 : 금동자 김현숙 설혜선
- * 볼링 남자 일반부 : 김유동 이상호 이성하 이용석 이창수 이현배
- * 볼링 여자 일반부 : 김영희2 이정희 전인옥 조미경 홍정이
- * 골프 남자 일반부 : 원도연 장태희
- * 골프 여자 일반부 : 김영희 문희숙
- * 탁구 남자 일반부 : 권장명
- * 탁구 여자 일반부 : 황길복



재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
KOREAN SPORTS ASSOCIATION IN INDONESIA(KSAI)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HYUNDAI



HYUNDAI Truck

Yang Memberikan Keuntungan Ini Bagi Anda!

- Untung!** Karena irit bahan bakar
- Untung!** Karena tak pernah rusak
- Untung!** Karena dapat perawatan di manapun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승기가 제안하는 청정원 푸드테라피!

말문이 열리는 칭찬복음밥으로 모녀 사이를 건강하게!

속마음이 전해지는 텔레파시 파스타로 연인 사이를 건강하게!

사랑이 샘솟는 러브러브 북어국으로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식약의기적

